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42호

Thursday, June 13, 2024 A

## VA 연방하원 예비선거 닷새 앞으로 북 VA 최대 격전지 10선거구가 들끓는다

### SPECIAL STORY

10지구 예비후보만 17명 난립  
민주당 웨스턴 의원 은퇴로 '공석'  
"보수 강세" 공화당 '전략 지구' 지정

오는 18일 버지니아 연방상하원의원 예비경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제7선거구와 제10선거구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지니아는 지난 3월5일 대통령선거 예비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예비경선에는 대선이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제니퍼 웨스턴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버지니아 제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예비선거에 지금까지 모두 17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2018년부터 3선을 달성했던 웨스턴 의원(민주)은 희귀 파킨슨 병으로 인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제10선거구 유권자의 절반 정도는 라우든 카운티 유권자이며 나머지 절반



엘린 필라-론 (민)



댄 헬머 (민)



제니퍼 보이스코 (민)



알리사 앤드류스 (공)

은 퍼쿼어, 라파예녹 카운티, 매나사스, 매나사스 파크 시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유권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남부 지역인 크립튼 타운과 유니온 힐 커뮤니티 지역 유권자도 포함돼 있다.

버지니아 제10선거구는 북버지니아 지역 중에서 보수적인 주민 거주 비율이 매우 가장 높은 곳으로, 공화당은 매년 전략 지구로 선정하고 있다. 웨스턴 의원은 2018년 선거에서 바바라 캠프스탁 현역 의원(공화)을 물리치고 처음 당선됐는데, 캠프스탁 의원 이전에는 프

랭크 울프 의원(공화)이 40년 동안 집권했던 곳으로, 공화당의 아성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엘린 필라-론 전 버지니아 하원의장과 댄 헬머 주하원의원이 가장 앞서고 있다.

두 후보는 모두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유대인으로, 거주지가 지역구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하원의원 지역구와 연방하원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다. 주하원의원 선거에서 240만달러를 모금하고도 패배했던 트라비스 넴브라드도 출마를 선언했다.

제니퍼 보이스코 주상원의원, 수하

스 서브라마얌 상원의원, 마셸 말도나도 하원의원, 데이빗 리드 하원의원, 국방부 직원 브랜든 가레이, 버지니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아티프 콰르니, 공화당에서는 알리사 앤드류스 전 버지니아 보훈부 차관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2020년 웨스턴 의원과 맞붙어 1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하지만 앤드류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변해 공화당 유권자 비율이 훨씬 늘어나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대선에서 제10지구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19%포인트 격차로 승리했으나,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서는 테리 맥컬리프(민주)가 글렌 영킨(공화)을 상대로 1.9% 포인트로 겨우 이겼다.

공화당에서는 이밖에도 퇴역 장교 출신의 알렉산더 아이작 주니어, 라우든 카운티 전 교육위원 존 비터, 변호사 마이크 크랜시, 교사 출신의 브룩 테일러 등이 출마했다.

김옥재 기자

연준, 기준금리 유지  
5.25~5.50%

기준금리가 또 다시 동결됐다. 현재와 같은 5.25%~5.50%를 유지한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돼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7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의 금리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가 유지됐다.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면서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지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2%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완만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다.

▶6편 '기준금리'로 계속 이해준 기자

## 이재명 '4법 리스크' 3자 뇌물 혐의 추가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기소  
대장동·위중교사·선거법위반까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관련 뇌물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로써 이재명은 ▶대장동·백현동·성남 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중교사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한데도 이행을 약속하고, 북측이 2018년 11월 스마트팜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4월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 북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도합 800만 달러를 제3자인 북한에 준 이 대표의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2편 '이재명'으로 이어집니다



전국이 흔들렸다. 부안 규모 4.8 지진 12일 오전 8시26분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울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날 부안군 개화면의 한 주택가에 기왓장이 날려져 있다. ▶관계기사 12면 [뉴시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배임  
순금 여기 물렌지팔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b>스시 식당</b></p> <p>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b>버지니아 상가건물</b></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의 \$218,000</p>	<p><b>디시 유명 델리</b></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의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Beer &amp; Wine Shop</b></p> <p>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b>상가</b></p> <p>매들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b>식당 자리</b></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b>사무실</b></p> <p>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b>사무실</b></p> <p>워싱턴 디씨,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b>Beer &amp; Wine Shop</b></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b>상가</b></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p>
<p><b>창고</b></p> <p>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트, 버지니아</p>	<p><b>단독 건물</b></p> <p>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p>	<p><b>콘도</b></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워그맨열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b>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b></p>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 업 체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수자

# 이재명 주4회 재판 가능성... 금고형 이상 땀 대선 길 막힌다

네 개의 재판, 커지는 '4법 리스크' 공직선거법 재판 21개월째 공전 벌금 100만원에도 피선거권 박탈 하급심판 유죄여도 당내 경선 발목 위증교사 혐의 선고 가장 빠를수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제3자 뇌물 등)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이 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 커졌다. 어떤 재판이든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21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하급심 유죄 선고만 받더라도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문제)으로 당내 경선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이 남기 때문이다.

우선 2021년 12월 SBS 인터뷰에서 민주당 20대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



기소 사항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	위증교사	대북 송금
2022년 9월 8일	2023년 3월 22일(대장동) 2023년 10월 12일(백현동)	2023년 10월 16일	2024년 6월 12일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몰랐다" 발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혐의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위증) 교사	▶쌍방울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 대남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스]

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후 21개월째 공전 중이다.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신투쟁과 흥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만일 이 재판으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에

서도 물러나야 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에도 연결되는 셈이다.

다만 연내에 1심 선고가 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은 대선 정국이 한창인 내후년이나 나올 것이라 전망도 나

온다.

지난해 3월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10월 기소된 백현동 사건은 병합 심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두산건설 등 기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아울러 이 대표 최종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핵심 친명계가 다수 재판을 받는 중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계파 구도가 바뀔 수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2019년 2월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대법원 무죄 확정)에 출석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다른 재판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가장 빨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이 4개로 늘면서 이 대표의 정치활동 제약도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격주 금요일, 위증교사 재판으로 월 1회 콜로 법원을 가는 중인데, 대북 송금 재판까지 합하면 한 주에 최대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김준영 기자

## 검찰 "북에 경기지사 명의 공문 4번"

▶1번 '이재명'에서 이어집니다

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금융제대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조선아태위원장 겸직)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 사업과 경기도지사와 경제개발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은 방북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련의 행위이고 경기도지

사 명의로 북한에 초청 요청 공문도 4차례 보냈다"며 "이 대표 본인은 김성태 전 회장과 2차례 통화를 '기억 안 난다'고 하나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통화는 당연하고 모친상 때 (측근을 보내) 상호 조문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문이 이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방홍철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두 차례 통화했다는 검찰의 주장 등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도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이 전 부지사로 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쌍방울그룹이 제3자(북한)에 송금한 건 사실상 이 대표에게 건네는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등에 대해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평화부지사 사퇴를 앞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지사님 방북도 같이 추

진하고 있는데, 북한과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도 "고생했다"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겨 있다.

공직제보자 조명현씨가 폭로한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의혹 등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배모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이 개인 음식값 등에 법원카드를 유용한 데 개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씨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국고 손실 혐의도 들여다보

고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 경선과 경기지사 선거 당시 쌍방울과 KH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남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통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말 걸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워싱턴 날씨 (°F)**

14일(금) 93-69 ☀	17일(월) 95-76 ☀
15일(토) 86-66 ☀	18일(화) 76-76 ☀
16일(일) 87-72 ☀	19일(수) 96-76 ☀

6월 13일(목) 90~71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9%	0.9%	53.9%	42.9%	2.3%	0.9%
매우물음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엉치** 꼬리뼈  
좌골신경통

**sciatica**

**옆드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펴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뻣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방아쇠**  
**퍼지지 않음**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 “대선 투표로 정치력 신장 이뤄 달라”

### 조기중 총영사 동포인론 간담회 “동포들 한인사회 관심과 열정 감사”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가 주재한 한인인론 간담회가 12일, 애난데일 소재 설악가든 식당에서 열렸다.

조 총영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대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에 한인 시민권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정치력 신장의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한층 높아진 한인 정치력이 대사관은 물론 한국정부와의 연결 고리로 발전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부임한 조 총영사는 지난 9개월 활동을 소개하면서 추가순회봉사서비스 실시 및 민원실 환경 개선 등 영사서비스 질 향상을 ‘역점사업’으로 손꼽았다.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실시한 순회 영사서비스는 DC에 방문하기 쉽지 않은 동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동포 사회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대사관 영사 민원실 방문 사전 예약제 실시 관련 대사관 홈페이지에 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 신설과 더불어 선전적복수국적자 관련 애로사항을 한국정부 담당 부처에 제기해 온 점, 복수국적자 희망자들을 위한 홍보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청 주관 국



(왼쪽부터) 이지호 참사관, 조기중 총영사, 김봉주 영사

적·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조 총영사는 “부임 이래 동포 및 주요 한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청취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내 한인사회 위상강화와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희생, 봉사하는 동포들께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재외선거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과 투표해 준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영사관 예약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영사관 업무를 보려면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나이 많은 한인들은 상당한 불편이 뒤따른다는 호소였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장기 체류시 필요한 재외동포 비자와 병역, 한국에서의 유산 상속과 재산권 행사, 연금 수령을 위한 영사확인 등 영사관을 거쳐야할 민원업무가 매우 많다.

일부 한인 민원인들은 예약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의견에 조기중 총영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예약 없이 방문해도 민원처리를 해드리고 있다”며 “예약제는 업무상 담질을 높이기 위한 민원인 배려 차원의 제도”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한인단체들의 국경일 기념식 통합 추진, 재외 동포청 역할 확대, 복수국적 연령 제한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윤미 기자

# ‘심야 연장영업’ 등 강력단속 예고

### VA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여름철 범죄 단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카 미팅 등 난폭 운전과 술집 등의 심야 연장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 단속 캠페인은 8월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경찰국 산하 범죄 분석관실(CAU)은 최근 수년간의 6-8월 범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카 미팅 등 난폭운전 범죄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브레이클리 부국장은 “난폭운전자들이 카 미팅 행사를 통해 드래그 레이싱과 드리프트 등을 하고 있는데, 버지니아 형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앞으로 난폭 운전 차량 동호회 행사로 알려진 카 미팅에 참석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이 가능한 1

급 경범죄가 적용된다.

당국에서는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와 리 하이웨이, 55번 고속도로, 리틀리버 턴파이크 등 우범 지역을 집중 단속 구간으로 지정했으나, 각종 정보를 이용해 카 미팅 행사가 열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경찰을 출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이같은 차량 난동 범죄가 술집 심야 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버지니아주류단속국(ABC)과 공동으로 불법 영업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당국은 지난 4월 스프링필드에서 벌어진 대규모 카 미팅 난동사건을 담은 동영상 공개하고 “이같은 소란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기 전에 사전 개입하는 작전까지 구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세용 기자



#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 7억달러 배상 합의

워싱턴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43개 주 법무부와 존슨앤드존슨(J&J)가 베이비 파우더의 난소암 관련성 조사를 위해 7억달러를 수수한다고 합의했다.

약정에 의해 워싱턴DC는 300만달러, 버지니아는 2110만달러, 메릴랜드는 1490만달러를 받게 된다.

각 주정부는 J&J가 베이비 파우더에 포함된 석면 성분 등이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같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현재 6만명 이상의 난소암 환자와 중피종 환자가 J&J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 파우더는 J&J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1세기 이상 판매돼 왔다.

김윤미 기자



# 교량 붕괴 11주 만에 볼티모어항 정상 운영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이 교량 붕괴 11주 만에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육군 공병단과 해군 인양 잠수부들은 항로 복원을 위해 파타스코강에서 약 5만톤의 잔해를 제거했다고 사고 대응 사령부가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10일부로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볼티모어항에서는 지난 3월 26일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달리’가 동력 통제를 상실하면서 대형 교량 ‘프랜시스 스콧키 브리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키 브리지가 붕괴했고, 교량 보수 공사를 하던 노동자 6명도 목숨을 잃었다.

# 어린이 웰빙지수 VA 16위·MD 22위



워싱턴 지역 어린이들의 웰빙지수가 전국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재단 애니 케이시 파운데이션이 발표한 2024년 어린이 웰빙지수 평가에 의하면, 버지니아가 16위, 메릴랜드가 22위를 기록했다.

웰빙지수 평가는 경제적 웰빙, 교육, 건강, 가족, 커뮤니티 등 모두 5개 범주로 나눠 진행됐다. 교육의 경우 연방교육부의 교육진보평가보고서(NAEP)의 2019-2022년 개정증보판에 포함된 4학년 읽기와 8학년 수학 점수 등을 포함했다.

버지니아는 교육 부문 웰빙지수가 7위, 메릴랜드는 22위였다. 버지니아 4학년 학생의 68%가 읽기 합격점에 미달했다. 또한 8학년 학생의 69%가 수학 합격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메릴랜드 학생들은 각각 74%와 75%였다.

경제적 웰빙 지수는 버지니아가 17위, 메릴랜드가 18위였다. 건강 지수는 버지니아가 23위, 메릴랜드가 27위, 가족 및 커뮤니티는 버지니아 17위, 메릴랜드 21위였다.

이 재단은 UPS 창업자 짐 케이시가 1948년 네 남매를 홀로 키운 어머니 애니 케이시를 기려 설립했으며 올해로 35번째 웰빙지수 평가보고서를 편찬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 “교통사고는 왓츠 & 박”

###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양용 사건 정보공개, 본지 LAPD 소송한다

미공개분 요구에 LAPD측 거부 '수사물' 이유... 10월에 재정보정찬용 변호사 "이미 일부 공개 전체 영상과 다를 수 있다 의심"

Dear Requester:  
The Department also recognizes that Penal Code Section 832.7 - which generally makes all peace officer personnel records confidential and exempt from disclosure - was amended by Senate Bill 1421 (SB1421) on January 1, 2019, and further amended by Senate Bill 16 (SB16), effective January 1, 2022. These amendments created an exception from that general confidentiality requirement fo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officer personnel and investigatory records, which are listed in Penal Code Section 832.7(b)(1)(A)-(E): (A) a record relating to the report, investigation, or findings of (i) an incident involving the discharge of a firearm at a person by a peace officer or custodial officer; (ii) an incident involving the use of force against a person by a peace officer or custodial officer that resulted in death or in great bodily injury; (iii) a sustained finding involving a complaint that alleges unreasonable or excessive force; (iv) a sustained finding that an officer failed to intervene against another officer using force that is clearly unreasonable or excessive; (B)(i) any record relating to an incident in which a sustained finding was made by any law enforcement agency or oversight agency that a

본지의 양용씨 사건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LA경찰국측이 보내온 거절 회신 일부.

LA경찰국(LAPD)이 소속 경관의 총격에 피살된 양용씨 사건에 대한 본지의 공공기록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LAP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달 10일 정찬용 변호사와 함께 LAPD를 상대로 양용씨 사건 당일 약 4시간 분량의 경관 바디캠 및 오디오 녹취록 등 공공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본지 5월 14일자 A-1면) LAPD의 캘리포니아공공기록법(CPRA) 전담 부서는 약 한 달만인 지난 5일 "해당 사건은 진행 중인 행정 조사 대상이므로 형법 제832.7(b)(8)(C)에서 규정한 (공개에 대한) 일시적 면

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를 10월 29일 이전까지 제공할 것이다"며 "형법 제 832.7(b)(6)에 따라 LAPD는 개인 정보 및 익명성 보호, 기밀 의료 및 재정, 기타 정보 보호를 위해, 또 경관 및 기타 사람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록을 편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LAPD는 현시점에서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거절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 LAPD는 지난달 16일 현장에 있던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에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미 총격 당시 순간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나머지 미공개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는 공개된 일부 영상이 전체 영상 및 녹취록 기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유가족들도 보지 못한 사건 현장 청소 과정, 오가는 순찰차 안에서의 오디오 녹취록 등은 LAPD가 사전에 공개한 짧은 영상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LAPD가 제시한 10월 까지 4개월의 기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관의 바디캠은 수사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Becerra v. Superior Court)가 있다. 현재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기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4개월 뒤에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도 모르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CPRA에 따라 경찰 바디캠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받은 사례 15개를 근거로 나열하며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한 상태다. 이번 정보 공개 청구에는 총을 쏜 경관의 인사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LAPD측은 본지 요청에 대해 인사 기록이 공개 사항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상원 법안에 의해 개정된 '경관 인사 기록 기밀 유지

및 비공개'(형법 제832.7조)에 따르면 몇가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경관 총격 및 무력으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 ▶ 경관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사건 ▶ 경관의 부정행위 및 허위 진술 보고서, 증거물 폐기 등이 드러난 사건 ▶ 인종·종교·성별 등에 기반한 경관의 편견 혹은 차별적 행위가 드러난 사건 등이다. 본지는 조속한 정보 공개를 위해 이번 주 내로 LAP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수사물이 아닌 사항을 수사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LAPD를 상대로 PRA 위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LAPD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의 변호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수기자

## 한미박물관 고발에 한인들 힘모은다

한인단체 관계자들 다음주 모임 검찰·국세청에 조사 요청 논의 재추진 신규단체 구성 가능성도

이 모여 한미박물관 이사회를 가주 검찰 및 국세청(IRS)에 고발하기 위한 미팅을 갖는다. 시민 후원회의 크리스토퍼 이 건축가는 "2차 공청회 이후 여러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함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미팅 스케줄을 다음주 내로 조율하고 있으며 조사 요청 및 고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박물관 프로젝트는 좌초 위기다. 건축비 증가로 건물 디자인조차 원점으로 돌아갔고, 지난 8년간 실무를 맡아온 윤신애 사무국장까지 그만뒀다. 한미박물관 웹사이트(kanmuseum.org)는 수년째 폐쇄된 상태로 방치돼 있고, 가주 검찰 기록에



는 관련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이사회 등록도 '연체(delinquent)' 상태로 표기돼 있다. 권영신 대한인국민회 전 이사장은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이사회의 입장을 듣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까지 아무 응답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법적 고발이 불가피하고 현재 10여 명 정도의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팅 스케줄을 조율 중"이라

고 말했다. 만약 한미박물관 이사회에 대한 고발이 정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좌초 위기의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단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사회 한 관계자는 "주류사회였다면 이런 식의 프로젝트 진행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일부 단체장, 한인사회 주요 인사 중에서는 법적 고발 후 새 단체 구성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무국장의 공석이 이어지고 있고, 이사회 교체 여부 등에 대해 본지는 이사회 측에 입장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박물관 디자인을 제작했던 '모포시스'의 이의성 건축가 역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미박물관은 지난 1991년 당시 원로 건축가였던 데이비드 현 이사장을 중심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 수잔 안, 예비역 김영옥 대령,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새미 리 박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한인 사회의 숙원사업이다. 이후 LA시로부터 한미박물관 건립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장기임대(2013년) 받는 쾌거를 이뤘지만, 그 이후부터 프로젝트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장열기자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아시아인 마트, 미국 문화로 정착”

### NYT, H마트 등 성장세 보도 “비아시아인 고객 30%선 증가” 소규모 상점→전국 매장 성장

“H마트·파텔브러더스·99랜치마켓...” 아시아인 이민자들의 식탁을 책임지던 아시아인 식료품점이 미국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시아인 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한식과 같은 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고 ‘경험해보고 싶은’ 식료품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결과로 분석됐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에스닉 그로스리 스토어로 부르지 말라(Don't Call It an 'Ethnic' Grocery Store)’는 기사에서 H마트와 파텔브러더스, 99랜치마켓 등이 새로운 문화와 습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1970~1980년대 아시아 이민이 급증하던 당시 생겨난 식료품점들은

처음엔 아시아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상점이었지만, 이제는 전국 매장과 모바일 주문, 앱 등을 갖춘 세련된 체인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H마트는 100여개 매장을 갖춘 20억 달러 규모 회사로 성장했고, 파텔브러더스는 전국 20개주에 52개 매장을, 99랜치는 전국 11개 주에 62개 매장을 소유하고 있다. 온라인 아시아인 식료품점인 위(Weee!) 기업가치는 41억 달러로 급증했다.

NYT는 “한국 신라면의 경우, 대학 기숙사나 보데가, 그리고 틱톡 비디오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며 “이제 아시아인 식료품점은 틈새시장이 아닌 미국의 문화”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분석 회사인 서카나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미국 마트의 ‘아시아·에스닉’ 품목 매출은 전체 매출 증가율보다 4배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 마트 직원들이 H마트에

방문, 어떤 브랜드를 들여야 하는지 시장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고 NYT는 전했다.

아시아인 마트도 주류사회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H마트 고객의 30%는 아시아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요 아시아 거주지역이 아닌 곳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99랜치는 안내 방송을 중국어와 영어로 하고, 매장 내 음악 재생목록에도 서양 음악을 추가했다. 파텔브러더스 고객의 20~25%도 남아시아인이 아니다. 최근 맨해튼 어퍼웨스트에 새롭게 문을 연 H마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매장 고객도 아시아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이곳을 방문한 재니 폴리나리는 “라면만 살 생각이었는데, 미국 제품이 많이 갖춰 트레이더조에 가지 않고 장보기를 끝냈다”며 “인터넷에서 유명한 핫트렌드도 얼른 경험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 빌게이츠 제작, 첫 ‘미니원전’ 첫 삽

### 한국 SK도 2억5천만불 투자 미국 SMR 시장 경쟁력 확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만들고 SK가 투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가 10일 첫 SMR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아서 미래 에너지 산업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원전이다. 현재는 국가 개발을 주도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상용화 측면에선 앞서고 있다. MS 등 민간 주도의 미국이 SMR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지 주목된다.

이날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게이츠와 크리스 르베크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마크 고든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SMR 착공식이 열렸다. 미국 내에선 첫 SMR 공사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테라파워가 지난 3월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원자로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며 “이날 시작된 공사는 NRC의 승인이 내려지면 가능한 한 빨리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부지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전했다.

완공 목표는 2030년이다. 내년 폐쇄 예정인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에 최대 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345MW(메가와트)급 단지로 구축된다. 건설 비용만 최대 40억 달러에 이른다. 사업비 중 절반가량은 연방 에너지부가 지원한다.

게이츠는 “민간 부문에서 탄소 연료를 쓰지 않겠다”며 2008년 테라파워를 설립했다.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도 기후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SK 그룹의 지주회사인 SK와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도



10일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테라파워 소형모듈원자로(SMR) 착공식에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 주지사(왼쪽 세번째)와 테라파워를 만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왼쪽 네번째)

2022년 테라파워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SMR은 냉각재로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나트륨은 끓는점이 880도로 물(100도)보다 높아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던 장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대형 원전의 입지가 바다 근처로 제한되는 데 반해, 바다에서 냉각수를 끌어올 필요가 없는 SMR은 위치 선정이 비교적 자유롭다.

김민정 기자

##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간 10배 후퇴

### 국무부 7월 영주권 문호서 나머지 순위는 대부분 진전

올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접수가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로 6월 문호와 동일했다. <표 참조>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는 조금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1월 15일에서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 우선일자 역시 2023년 2월 15일에서 2023년 3월 22일로 한 달 넘게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0월 8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진전했고, 접수가 가능일자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1년 1월 8일로 소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은 비자발급일자와 접수가 가능일자가 각각 2개월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일자와 접수가 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 가능 우선일자	
가족이민	1	2015년 10월 22일 (2015년 7월 8일)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A	2021년 11월 15일 (2021년 11월 15일)	2023년 11월 1일 (2023년 9월 1일)
	2B	2016년 5월 1일 (2016년 4월 1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3	2010년 4월 1일 (2010년 3월 1일)	2010년 10월 1일 (2010년 9월 1일)
	4	2007년 8월 1일 (2007년 7월 22일)	2008년 3월 1일 (2008년 3월 1일)
취업이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	2023년 3월 15일 (2023년 1월 15일)	2023년 3월 22일 (2023년 2월 15일)
	3	2021년 12월 1일 (2022년 11월 22일)	2023년 2월 1일 (2023년 2월 1일)
	4	2021년 1월 1일 (2020년 10월 8일)	2021년 1월 8일 (2020년 12월 15일)
	5	2021년 1월 1일 (2020년 11월 1일)	2021년 2월 1일 (2020년 12월 1일)
5	오픈 (오픈)	오픈 (오픈)	

괄호 안은 2024년 6월 우선일자. 자료:국무부

## FDA 자문위, 새 알츠하이머 치료제 지지

(일라이릴리 ‘도나네맵’)

### “FDA, 연말까지 최종결정 전망”

도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신약 ‘도나네맵’(Donanemab)이 연방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독립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FDA 자문위가 도나네맵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평가했다고 보

자문위는 그러면서도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단백질 타우 수치가 낮은 환자에 대한 임상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약효를 과약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FDA는 지난 3월 도나네맵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결과로 도나네맵의 FDA 승인이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각조)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각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B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85; VA MC-7182; TX 2501870; PA 106823; FL ML2526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EPA 연합뉴스]

# 부통령 해리스도 지지율 고전 '대선 출마하면 당선' 34% 그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계가 유력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진한 지지율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모닝컨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등록 유권자 3천9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승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만이 그렇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7%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는 그렇다는 답변이 59%에 육박한 반면 공화당 가운데는 13%에 불과했다. 무당층에서는 25%만이 긍정 답변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40%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4%, 공화당의 8%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5%로 동

률을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이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고 이 매체는 확인했다.

폴리티코는 "해리스 부통령이 초반 순탄치 않은 출발에도 지난해부터 나태 등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외교 현안에 있어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후원금 모금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흑인 등 일부 집단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기도 했다. 조사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가운데 하나인 흑인 유권자의 67%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6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이민자 문제(40%), 대중국 관계(37%),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35%) 등에 있어서는 낮은 신뢰도를 면치 못했다.

## ▶ 1면 '기준금리'에서 이어집니다.

이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전망이다. FOMC는 지난 3월 회의 직후에는 연방 금리를 4.6%로 전망, 모두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명의 참석자 가운데 7명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4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8명은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연준은 2025년 말에는 미국의 금리가 4.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지난 3월 전망(3.9%)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날 금리 발표 직전 미 노동부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지난달에 비해 둔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FOMC는 7월과 9월, 11월, 12월 모두 네 차례 남아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이날 FOMC를 마치고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

로 악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지표들은 현 미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팬데믹 직전 우리가 위치했던 지점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며 "상대적으로 단단(tight)하지만 과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5월 CPI 지표에 대해선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에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확신을 쌓는 데 있어서 오늘 보고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FOMC 위원들이 5월 CPI 결과를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선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사람들은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 하마스와 휴전안 이견 좁히려 노력

미국은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에 대한 하마스의 수정안을 검토했으며 아직 남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사진)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기내 브리핑에서 "하마스가 제안한 수정안 중 많은 부분이 사소하고 예상했던 대로"라며 "다른 제안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서술된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휴전과 인질 교환을 포함한 3단계 휴전안을 공개했으며, 안보리는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이 주도한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하마스는 전날 추가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

집트에 전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제 미국은 마지막 이견을 좁히기 위해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협력할 것이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5월 31일 연설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과 일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적은 이 과정을 종결하는 것"이라며 "흥정할 시간은 끝났다. 휴전을 시작하고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 애플, MS 제치고 장중 시총 1위 탈환

## 시총 3.3조 달러로 늘어

애플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자리를 되찾았다.

12일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50분(서부 오전 8시50분)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4.46% 오른 216.38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7.26% 급등 마감한 데 이어 이틀째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가는 장중 218.12달러까지 오르며 220달러선에 육박하기도 했다.

장중이긴 하지만, 시가총액도 3조3천170억 달러로 불어나며 같은 시간 주



가가 1.55% 오르는 데 그친 마이크로소프트(3조2천650억 달러)를 제치고 시총 순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시총 1위 복귀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애플은 한때 엔비디아(3.84%↑·3조1천80억 달러)에 밀려 3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애플의 주가 상승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 개막일 발표한 AI 전략이 시장에서 긍정적

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은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애플의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AI 장차 계획에 월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 2기 두려운 환경·과학 부처, 정치 개입 막을 방안 고민

트럼프 1기 때 정치적 압박을 경험한 미국 환경·과학 부처 공무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 직원 거의 절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달 연방정부와 새로 체결한 협약에 직원들의 업무를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연방공무원노동조합(AFGE) EPA 지부의 마리 오언스 파월 위원장은 새 조항은 노동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적 개입을 신고할 수 있게 한다면서 "트럼프 2기를 대비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약의 유효 기간은 4년이며 노동자의 신고 내용을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직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조사관이 검토하도록 한다.

EPA 공무원들이 정치적 개입을 걱정하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



도널드 트럼프

기 때 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 중의 하나는 환경 부처들"이라면서 "그들은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보고서 '프로젝트 2025'는 EPA의 환경 정의국(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이 조직은 저소득층과 소수 인종에 피해가 집중된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됐다.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경우 지난 3월 더 엄격한 과학 윤리규정을 도입했다.

NOA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NOAA 과학자들이 예측한 허리케인 경로와 다른 예측을 하자 트럼프 전 대

통령의 주장이 옳다는 성명을 냈으며 이를 통해 과학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020년 조사에서 결론났다.

공공 부지와 수자원을 관리하며 해양 시추와 멸종 위기종 보호 등을 관할하는 내무부도 트럼프 2기 때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기 때 삭감할 정부 기능으로 내무부를 지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내무부의 토지관리국을 워싱턴DC에서 콜로라도주로 이전했고, 이에 영향을 받은 토지관리국 직원 87% 이상이 그만두는 등 트럼프 4년 동안 내무부 직원이 4천900명 줄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한 뒤 연방정부 부처에 연구를 정치적 간섭이나 조작에서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런 정책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행정명령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 빌딩 3층**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 해푸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베스트 세일

## HAEPUREUM BEST OF THE BEST ITEMS

June 13th(Thu) - June 20th(Thu)

롯데플라자 마켓 (실버스프링 & 헨던 매장 제외)  
Lotte Plaza Market (Excluding Silver Spring / Herndon Store)



**RENEWAL ITEM**

**BEST CHOICE**

해푸름  
안동식 간고등어살  
Haepurum  
Salted Mackerel  
Fillet

16.99

**9.99**

2.2LB



**ENCORE ITEM**

**BEST CHOICE**

해푸름  
명란젓(오리지널)  
Haepurum  
Seasoned Pollock  
Roe (Original)

454g 1LB 88원

19.99

**14.99**

1LB



**NEW ITEM**

**BEST CHOICE**

해푸름  
백명란젓  
Haepurum  
Seasoned Pollock  
Roe (White)

454g 1LB 88원

20.99

**15.99**

1LB



**GREAT DEALS**

해푸름  
청정바다 통영굴  
Haepurum  
Oyster (I.Q.F.)

2 PK(8OZ)  
**for 7.00**



**GREAT DEALS**

해푸름  
오동통 냉동 푸꾸미  
Haepurum  
Frozen Baby Octopus

6.99

**3.99**

12OZ



**GREAT DEALS**

해푸름  
냉동 절단낙지  
Haepurum  
Cleaned Cut Small Octopus

9.99

**7.99**

1LB



**GREAT DEALS**

해푸름  
냉동 통낙지  
Haepurum  
Frozen Small Octopus

12.99

**8.99**

1.3LB



**GREAT DEALS**

해푸름  
해물모듬  
Haepurum  
Frozen Seafood Mix

10.99

**7.99**

2LB



**GREAT DEALS**

해푸름  
바다항 가득 바지락살  
Haepurum  
Frozen Boiled  
Baby Clam Meat

12.99

**8.99**

2LB



**GREAT DEALS**

해푸름  
오징어채  
Haepurum  
Seasoned Shredded Squid

7.99

**5.99**

8OZ



**GREAT DEALS**

해푸름  
죽방어가 지리멸치  
Haepurum  
Dried Anchovy (Jin)

11.99

**8.99**

8OZ



**GREAT DEALS**

해푸름  
죽방어가 볶음멸치  
Haepurum  
Dried Anchovy  
(For Stir Fried)

9.99

**7.99**

8OZ



**GREAT DEALS**

해푸름  
죽방어가 다시멸치  
Haepurum  
Dried Anchovy  
(for Soup Base)

7.99

**5.99**

8OZ



**GREAT DEALS**

해푸름  
바다 굵은 소금  
Haepurum  
Sea Salt (Coarse)

7.99

**4.99**

10LB



GRAND OPENING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64

Starling, VA  
30 Playpen Hill Dr., Starling  
VA 20156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Ea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center Dr.  
Chantilly, VA 20151

Arundale, VA  
5204 F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23030 Farmstead Hunt Place  
Ashburn, VA 20147

Herndon, VA  
290 Edison Street  
Herndon, VA 20171

Elliott City, MD  
881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ott City, MD 21040

Catonsville, MD  
59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807 Lee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321 Middle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관심 품 오plet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 미국, 중국 AI 반도체 싸자른다... “HBM·GAA 추가 규제”

(고대역폭메모리) (게이트올러라운드)

HBM·GAA 없이는 AI 반도체 불가 미국, 세부 규제 범위 등 논의 중 “기술 통곡의 벽 세우려는 것” 평가 대중 판매까지 금지 땀 한국도 영향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인공지능(AI) 기술 차단을 강화한다. GAA(게이트올러라운드)·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 칩 제조 시 필수적인 기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이 같은 제재를 더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AI 기술 통곡의 벽’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다.

GAA는 전력 소비를 크게 줄여 AI 칩의 성능을 끌어 올리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1nm=10억 분의 1m) 공정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고, 대만 TSMC와 미국 인텔이 차세대 공정에서 해당 기술을 적용해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반도체를 작게 만들수록 전력 효율과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GAA는 미래 AI 칩 생산에 필요한 기술로 꼽힌다. 전 세계에서 이를 상업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는 삼성전자·TSMC·인텔 3사뿐이다. 일본 라피더스는 2027년 2나노 공정에서부터 GAA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반도체에 붙는

첨단 메모리인 HBM 역시 전 세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만 생산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GAA 기술과 HBM 없이 AI 반도체를 자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 자립의 싹을 완전히 자르겠다고 나섰다. 다만 이번 규제가 중국의 자체적 GAA·HBM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지, 더 나아가 미국·한국 등 선두 업체들이 중국 회사에 관련 제품을 파는 것까지 차단할지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단순히 중국의 기술개발 능력을 꺾는 것을 넘어, 관련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까지

금지할 경우 우리 기업에 미칠 과장이 불가피하다. 앞서 일부 중국 고객사가 삼성전자의 GAA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부분의 주요 고객사가 TSMC에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맡기는 상황에서 대중 판매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삼성은 잠재 시장 중 하나를 잃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BM 시장 선두인 SK하이닉스 역시 당장은 미국 엔비디아 등이 HBM을 ‘입도선매’하고 있어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에도 올해 5나노 공정에까지 도입한 중국도 고민이 크다. 지난 2월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가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칩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상하이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보도했다.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다. 화웨이는 올해 SMIC와 자체 설계 AI 칩 ‘어센드 920’의 5나노 공정 생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AI 반도체가 TSMC의 4나노 공정에서 생산 중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이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

HBM의 경우, 중국 정부 주도의 컨소시엄이 2026년 2세대 HBM2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올해 5세대 HBM3E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최소 8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회권 기자



**유커들, 6년만에 크루즈 타고 부산 왔어요** 12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중국 상하이발 크루즈선 ‘블루 드림 멜로디’호가 입항했다. 블루 드림 멜로디호는 지난해 8월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허용 이후 부산항에 처음 입항하는 중국발 크루즈선이다. 승객들은 부산에 약 8시간 머물면서 시내 관광과 쇼핑을 한 후 일본을 거쳐 상하이로 되돌아간다. 작은 사진은 탑승객들이 배에서 내리는 모습. 송봉근 기자

##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 관세 추진

“불공정한 보조금에 EU업체 피해” 조사 협조한 지리 등엔 30% 부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

(SAIC)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10%+38.1%)로 오르는 셈이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자동차(BEV)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삼권 기자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또 성 추문에 휩싸였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여러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전한 대표적인 사례는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일한 20대 여성과의 관계다.

이 여성은 2010년대 초반 대학 재학 중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회사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어 머스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머스크는 이 여성을 불러내 데이트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WSJ은 전했다.

머스크는 이 여성의 인턴십이 끝난 다음 해에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여성을 시칠리아에 있는 한 리조트로 초대해

## 머스크 또 성추문... “인턴 불러내 성관계, 간부급으로 채용”

만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머스크는 이 여성에게 스페이스X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정규직 간부급(executive staff) 역할을 맡기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스페이스X의 전직 직원들은 이 여성이 유능한 엔지니어이긴 했지만, 갓 입사한 젊은 직원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이 여성이 입사한 뒤 머스크는 자택에 그녀를 여러 차례 오게 했고, 자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이 여성은 2019년 직속 상사였던 임원이 해고되면서 함께 퇴사했다.

WSJ에 따르면 2013년 스페이스X에



이 여성은 머스크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후 머스크는 이 여성의 연봉 인상을 승인하지 않고 업무 성과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이 여성은 결국 100만달러가 넘는 현금과 주식을 퇴직 급여로 받고 회사를 떠났다.

머스크는 또 2014년 스페이스X에서 그에게 직접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던

서 근무하다 회사를 떠난 또 다른 여성은 머스크가 자신에게 그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머스크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후 머스크는 이 여성의 연봉 인상을 승인하지 않고 업무 성과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이 여성은 결국 100만달러가 넘는 현금과 주식을 퇴직 급여로 받고 회사를 떠났다.

머스크는 또 2014년 스페이스X에서 그에게 직접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던

여성 직원과 한 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WSJ은 전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 추문에 시달린 바 있다.

2022년 5월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는 머스크가 2016년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스페이스X 소속 전용 제트기에서 여자 승무원의 다리를 더듬고, 이 승무원에게 성기를 노출한 뒤 성적 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승무원은 사건 발생 약 2년 뒤 스페이스X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이 승무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5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전했다.

지난해 출간된 머스크의 전기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에게 출산을 권하며 정자를 기증하겠다고 제안했고, 질리스가 이에 동의해 체외 수정으로 2021년 이란성 남·여 쌍둥이를 낳았다.

그동안 머스크가 결혼한 여성은 2명이었으며, 두 번째 부인이었던 영국 배우 탈랄라 라일리과 완전히 결별한 것은 2016년이었다.

머스크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나다 출신 소설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 5명과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본명 클레어 바우처)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 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리에서 3분, 댄스스포츠센터 옆엔 연인들+mar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첼트리+mar과 첼트리/포드에서 각각 5분거리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넣은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를 추천합니다"

- 은행잎 추출물
- 자색 고구마
- 비타민 A
- 루테인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정미란 안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국 소아안과학회 (KAPOS) 정회원  
 한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KSCRS) 정회원  
 미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ASCRS) 정회원  
 미국 안과학회(AAO) 정회원

온가족 눈 건강 지킴이

아이클리어(정)



**개별 PTP 포장**

- 산소와 열로부터 보호
- 위생적인 개별포장
- 간편한 휴대성

## 소중한 눈도 믿을 수 있는 우메켄에서 지켜드립니다

- ☑ 눈 노화, 안구 건조증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피곤한 눈을 지켜주는 최적의 보충제
-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눈 노화 집중 케어를 원하는 시니어까지

### 눈 건강 개선 특수 성분 8가지 함유

- 루테인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자색고구마 분말 • 은행잎 추출물 • 비타민 A

### 출시 기념 행사

아이클리어 구매 시 씨밸런스(\$39) **무료 증정**  
 같이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 일상생활에서 침침한 눈으로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분
- 스마트폰, TV, 컴퓨터 장시간 사용 하시는 분
- 노화,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으로 황반변성 위험도가 있는 분
- 사물을 바라볼 때 편안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분
- 안구건조증 및 눈 노화의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

888-941-3311 [umeken.com](http://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선거 판도 바꾸는 바람이 아니라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

이 땅에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정확하게는 박무익(전 한국갤럽 회장)으로부터 비롯됐다. 여론조사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반세기 전 그는 “여론조사가 민주주의 발전의 뿌리”라는 신념으로 조사업에 투신했다. 오늘날 여론조사는 공기처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지만, 50년 전인 1974년 박 전 회장이 문을 연 조사회사는 “일거리가 없어 공치는 날이 많았던” 영세 벤처였다.

좋은 대학(서울대 철학과) 나와 좋은 직장(LG전자 전신인 금성사, 제일기획)에 다니던 잘나갔던 엘리트 박무익, 그는 왜 탄탄대로를 마다하고 “회사 운영비는커녕 건물 관리비 생활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전 직원 나정에) 험로에 뛰어들어 고난을 자초했을까. 여론조사 무용론이 나올 만큼 불신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실은 거꾸로 이런 물음을 갖게 한다. 조사업체의 난립과 여론조사 흥남만 낸 날립 조사로 혼탁해진 풍토가 ‘조사인’으로 살다 간 박무익의 인생 여정을 되짚어보게 했다.

마침 한국갤럽 창립 50주년을 맞아 『박무익 평전-한국 여론조사의 대부』(저자 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출간됐다. 과학적 여론조사를 통한 민주 사회 발전을 꿈꿨던 박무익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보자.



정치에 여론조사 기법 도입 효시 당락보다 예측 오차 줄이기 고심 중립성·객관성 이유로 투표안해 “언론도 조사품질 구분 역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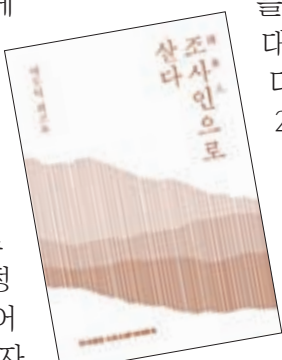
고(故) 박무익 전 회장은 “일류 리서처의 요건”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꼽았다. 보통사람들의 생각과 대화를 엿듣는 게 좋으며 주로 버스-택시를 이용했다. [사진 한국갤럽]

## 인생을 바꿔놓은 조지 갤럽

창업 4년 차이던 1977년, 박무익은 조지 갤럽 박사의 책 번역(『갤럽의 여론조사』)을 계기로 정치 여론조사에 눈뜬다. 민주주의의 암흑기, 갤럽 박사가 던진 “한국에서도 정치 여론조사가 가능한 풍토인가?”라는 질문이 가슴속에 묻어뒀던 잠재 본능을 일깨웠는지 모르겠다.

여론조사의 창시자 격인 갤럽 박사는 공화당(엘프리드 랜던)의 우세를 점치던 미 대선(1936년)에서 민주당(프랭클린 루스벨트) 승리 예측을 적중시키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전문가다. 갤럽 박사와의 인연으로 박 전 회장은 갤럽 인터내셔널에 가입, 회사 이름을 KSP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갤럽 인터내셔널의 회원이 됐다는 건 여론조사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췄다는 의미다. ①정부·정치권·언론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②공정한 표본 추출과 응답자 보호 등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③국민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작을 해선 안되며, 조사의 기본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평생 고수했다.

박 전 회장은 조사인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1987년 이래 투표를 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조사 비용을 깎거나 정부의 최저가 입찰 제안에 응하지 않은



건, 비용을 줄이면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 정중환 첫 대선 예측 조사

한국갤럽이 정치사에 등장한 건 1노(노태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경쟁했던 13대 대선(1987년)이다. 군중 집회 참석 인원수를 놓고 판세를 점치던 때, 박 전 회장은 대선 예측 결과 발표하는 도박을 벌였다. “노태우 후보 34.4%, 김영삼 후보 28.7%, 김대중 후보 28.0%, 김종필 후보가 8.4%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포인트입니다.”

예측은 적중했다. 정치에 여론 조사를 도입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그가 ‘여론조사의 대부’로 불리는 이유다.

여론조사의 힘은 실로 대단했다. 당시 야권에 선 양김 단일화 실패로 55.1%(김영삼+김대중)를 득표하고도 정권을 놓치자 컴퓨터 부정선거 주장이 봇물 터지듯 했다. 분신과 장외 투쟁이 이어졌고, 국회 국정조사까지 했지만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갤럽이 선거기간 동안 진행해 온 비공개 데이터를 공개했고, 야

권은 더는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못했다. “여론 조사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간 집단의 생각을 측정해 양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임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부정선거 시비가 더 큰 비극으로 확산하는 걸 막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생긴 건 여론조사 덕분이었다.

## 김대중 축하 난의 리본을 떼다

15대 대선에서 한국갤럽은 김대중 후보 당선을 예측,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김대중·이회창 후보 간 격차가 1.6%포인트에 불과했던 당시 대선은 경쟁 조사업체들이 모두 예측 발표를 포기했을 정도로 초박빙이었다. 하지만 한국갤럽은 예측 조사(김대중 39.9%, 이회창 38.9%) 발표를 강행했다. 박 전 회장에게 ‘1%의 승부사’란 별칭이 붙은 건 이때부터다.

일화가 있다. 김대중 당선자가 한국갤럽에 축하 난을 보내왔는데, 박 전 회장은 직원에게 ‘김대중’ 이름이 적힌 리본을 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할 조사회사에 특정 정치인, 특히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이 전사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여론조사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매주 금요일 갤럽 주간 리포트

박 전 회장이 늘 승승장구한 건 아니다. 2000년 16대 총선과 2002년 대선 예측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2002년 노무현·이회창 후보 대결에선 선거 전날 밤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지지 철회의 영향을 과대평가한 탓에, 16대 총선 전 완전하지 못한 출구조사 시스템을 과신하는 바람에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2010년대 들어 조사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무분별한 조사가 남발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혼돈기에 접어들었다. 박 전 회장은 선거 때만 하는 조사가 아니라 매일 조사해 여론의 흐름을 측정하자며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시스템(2012년)을 만들었다. 한해 수 억원의 생돈이 드는 일이지만 “당락을 맞히는 것보다 예측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행했다. 매주 금요일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정당 지지도 등을 담은 한국갤럽의 주간 리포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박 전 회장은 평소 “여론조사는 선거의 판도를 바꾸는 바람이 아니라 조사 시점의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라고 말하곤 했다. 동시에 ▶변동성이 높은 출구조사에 매달리는 조사업체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ARS 조사를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하는 언론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인기 영합용으로 치부하는 정권의 태도에 실망했다. 2017년 작고하기 두 달 전 병상에서 구술로 집필한 회고록 『조사인으로 살다』를 남겼다. 냉소의 대상이 된 여론조사의 혼탁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곳곳에 녹아 있다.

의뢰자 의도에 맞춘 설문 설계가 문제  
기자 출신 언론학자이자, 박 전 회장의 마지막을 지키고 평전을



쓴 김동률 교수에게 물었다. “부인 나초란 여사가 ‘지하에 계신 박 회장이 땅을 치고 한탄할 일’이라고 했을 정도로 여론조사가 불신받고 있다.”

“여론조사가 불신받는 건 정치적·정파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까짜 여론조사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가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객관성·공정성을 잃고 합당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업체가 적은 탓이다. 동일 시점에 진행된 조사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조사 방법(전화 면접 vs ARS) 외에도 질문의 문구, 배열 순서, 조사원의 숙련도, 데이터 처리의 완벽성 등 조사 품질에 차이를 가져오는 여러 요인 때문이다. 같은 회사에서 한 조사도 책임자의 경험·능력이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가 필요하다.”

“영세 업체의 난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법은 쉽지 않다. 특히 의뢰자의 의도에 맞춘 조사 설계가 문제다.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한 질문, 미숙련 조사원, 조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할 능력과 경험 부족 등 여러 요인 중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는 게 불가능하다. 보통 사람들은 이 과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여론을 파악하는 걸 우선시해야 한다. 언론의 책임도 크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 완성도 낮은 문제투성이 조사 결과도 그냥 가져다 쓴다. 언론도 조사의 품질을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중구난방식 정제되지 않은 조사 결과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여론 측정이 수월해졌는데도 공정성 시비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조사 방식은 가구 방문 면접→집 전화→휴대폰 조사로 바뀌고 있다. 다음 대선에선 휴대전화 100%가 아닌 다른 도구를 통한 조사가 혼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정성 논란은 여론 측정 도구의 문제가 아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조사를 진행하려는 의뢰인의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정치 집단이 단독으로 진행한 조사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사업체도 의도성 있는 요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박 전 회장과 오래 교류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한 시대를 앞서 살다 간 사람이다. 사람들은 ‘까짜’라고 수군했지만, 그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시대, 군부 독재의 압력 속에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 생의 모든 걸 바쳤다. ‘여론조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알파오메가’라는 신념으로 외로운 조사인의 삶을 살았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숏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 제임스 박 부동산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Oakton Condo</div> <p style="font-size: small;">2 br 2 baths, good condition Oakton High School</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335,000</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Alexandria Condo</div> <p style="font-size: small;">2 br 2 baths</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375,000</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Manassas Park Condo</div> <p style="font-size: small;">2 br 2 baths Elevator, 1500SF, 1 Car, 센터빌 10분거리</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320,000</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Alexandria Single</div> <div style="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Shortsale</div> <p style="font-size: small;">6 br 5.5 baths, 2 Car Built 2006</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1,030,000 (시세 140만)</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Woodbridge Condo</div> <p style="font-size: small;">2 br 2 baths</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70C0;">\$280,000</p>	

571.242.4500

james2424500@yahoo.com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제임스 박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YIM CHIP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드립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마감** 2차 6/18-6/28 (영어가이드)  
**마감** 3차 9/24-10/4  
**마감** 4차 10/15-10/25  
5차 10/22-11/1 (단풍특선)

**특선**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  
**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옵션)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11/12-11/23 \$3590+항공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일출발**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금출발**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대강**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가이드)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대강**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대강**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대강**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대강**  
인사이드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 (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3-10/2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대강**  
10박 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3590+항공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시내선)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제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비공원, 대국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야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야시장, 피피섬, 왓폴 사원, 코끼리 트래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사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공작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하계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로산박물관, 화원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문, 아류해양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바버비베이, 리버월드, 헨더슨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캐시앙, 마리아안공원, 차이타온, 센토사섬, 실로소버티

**독립기념일 특선** happy 4th July

**뉴욕 불꽃놀이** 1박 2일 \$450  
7월 4일 중반

**레치워스 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 3일 \$699

**천성 몽드광물관 몬트리올/퀘벡** 3박 4일 \$950  
**노아의 방주** 3박 4일 \$950

**성극 다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7/11, 8/1, 8/22, 9/19, 10/17, 11/14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출발: 6/24, 7/22, 8/5

**뉴욕** 1박 2일 \$399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대행버스출발: 7/22, 9/16, 10/7

**뉴욕·천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3박 4일 \$899  
대행버스출발: 7/8, 9/23, 10/21

**뉴욕**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캠버랜드 기차여행** \$159

**미동부 버스 관광** 워싱턴디씨 \$100  
**당일관광** 루레이동굴 \$125

**서부관광**

**미서부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개년까지 일출 여행  
8박 9일 **일출발** \$1450+항공

**서부 4대 개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개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일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지각 가장 안정된 호남서 강진, 미확인 단층 움직임일수도

**전북서 관측이래 최강 지진 왜?**  
**단층, 수직 아닌 수평이동해 발생**  
**충남~전북 지나는 함열단층 유력**  
**“호남·수도권까지 지질연구 시급”**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12일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4.8이었다. 전북 지역 주민들이 느낀 진동은 진도 5 수준이다. 규모는 지진파의 최대 진폭을 측정해 나타낸 지진의 크기를, 진도는 지진파로 인해 특정 지점이 흔들리는 정도를 말한다.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유리창 등이 깨지는 수준이다. 본진에 이어 오후 6시까지 17차례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최소 일주일가량은 여진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진은 땅속에 누적된 응력(에너지)이 급격하게 방출되며 지각이 변동하면서 발생한다. 지각 변동으로 단층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진동과 충격파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는 최대 규모다. 또 전북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도 1978년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 발생지 반경 50km 이내에선 지난 46년 동안 4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75%인 30차례가 규모 2~3이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북동-남서 또는 남동-북서 방향으로 이어진 단

층이 수평하게 이동하며 발생한 ‘주향 이동단층’ 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단층이 위아래로 이동하지 않고 단층면의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북 지역의 단층 정보가 부족해 이번 지진을 어떤 단층이 일으켰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이번 지진이 발생지를 지나는 ‘함열단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함열단층은 부여 분지의 남동쪽 경계를 이루는 단층으로, 충남 부여군에서 전북 부안군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근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 상황대응팀장은 “지진 발생지와 (함

열)단층 위치가 겹친다는 점에서 유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한반도에서도 최대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간 호남 지역은 지진 안전지대로 불린 한반도 내에서도 가장 안정된 지질구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단층 조사가 활발하지 않았다. 홍태경(지구시스템과학) 연세대 교수는 “이번 지진 발생지 인근에서 관측된 지진동(지반의 흔들림)이 0.15g(중력 가속도의 15% 수준) 정도인데,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설계 기준이 0.3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진동”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지진 연구는 일천하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이후 정부의 단층 조사가 겨우 길음마를 댄 상황이다. 한반도 단층 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사업에 따라 현재 영남권에 대한 1단계 조사를 마쳤고, 수도권·충청권 대상의 2단계 조사가 진행 중이다. 3단계(호남권)와 4단계(강원권)까지 완료되는 예정 시점은 2036년이다. 김영석(환경지질과학) 부경대 교수는 “(이번과 같은) 규모 4.8 정도 지진은 우리나라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단층이 있는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큰 지진이 날 수 있어 지질 연구와 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12일 오전 발생한 지진으로 부안군 흥산마을회관 인근 주택의 벽이 갈라졌다. 이날 전주와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교실을 빠져나와 운동장에 대피해 있다. 같은 날 발생한 지진 여파로 부안군 행안면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서 떨어진 음료수가 바닥에 쏟아져 있다. 이날 대전 등 19개 학교에서 벽에 금이 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다. [뉴시스·연합뉴스, 사진 전북소방본부]

## 부안 “쿵 쿵음 뒤 건물 흔들렸다”... 대전 학교 벽 갈라지기도

전북 부안에서 12일 아침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놀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등 긴급 대피했고, 일부 건물은 벽에 금이 가거나 유리창 등이 깨졌다. 다행히 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8시26분쯤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2도로 행정구역은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다. 진원 깊이는 8km로 추정했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 규모를 4.7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4.8로 조정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17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특히 오후 1시55분 15번째 여진은 규모가 3.1이었고, 기상청이 추가로 지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지진은 전국에서 감지됐는데,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315건(오후 2시 기준) 접수됐다. 이 가운데는 수도권은 물론 300km 거리인 강원 지역의 신고도 있었다. 부안군 동북초등학교 고동호(50) 교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출근 후) 날벌레를 치우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갑자기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며 “처음에는 (북한에서 보낸) 오물 폭탄(풍선)인 줄 알았는데, 지진이라는 것을 알고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학교에는 교사 4명과 학생 14명이 있었으며 지진 발생 직후 다 함께 운동장으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지진에 놀란 시민들도 집 또는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했다. 부안군 주민수는 4만8700여 명이다. 부안군 보안면에 사는 최훈규(51)씨는 “2층짜리 단독 주택인데 5~6초간 베란다 창문 등 집 전체가 흔들렸다”며 “차가 들이받은 줄 알고 밖에 나갔다가 긴급 재난 문자를 본 뒤에야 지진이 걸 알았다”고 말했다. 신정승 부안군청 홍보팀장은 “청사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온몸이 흔들릴 정도였다”며 “곧바로 사이렌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와 전 직원이 밖으로 대피했다가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부안과 인근 지역에서 재산 피해 신고도 잇따랐는데, ▶창고 벽에 금이 갔

을 최대 규모 지진, 전국서 감지 “5~6초간 창문 등 집 전체 진동” 학교·군청서도 건물 밖 긴급 대피

12일 전북 부안청차박물관에서 한 관계자가 지진으로 깨진 청자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다(부안군 보안면) ▶주택 유리창과 벽에 금이 갔다(부안군 하서면)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부안군 백산면) ▶연립주택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부안군 부안읍) ▶담이 기울어졌다(익산시 남중동) ▶지하주차장 바닥이 들렸다(부안군 변산면) ▶편의점 진열대에서 음료수가 쏟아졌다(부안군 행안면) ▶주

택 창고에 금이 갔다(정읍시 하북동) 등의 내용이다. 공공시설로는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바닥에 균열이 발생했다. 문화재 피해도 일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부안 내 소사 대웅전(보물)에 변위(위치 변화)가 발생했고,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 주변 담장에 균열이 생겼다. 진앙에서 48km 정도 떨어진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지만 별다른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됐다. 한빛원전에는 1000MW 규모 원전 6기가 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진 발생 직후 부안 댐을 긴급 안전 점검했고,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안이 속한 전북도뿐 아니라 대전까지 모두 19개 학교(오후 4시30분 기준)에서 벽에 금이 가거나 부착 시설물이 떨어지는 등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다. 지진 여파로 이날 전북·충남 2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들어 한반도와 주

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기상청이 계기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도 동해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4.5)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육지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 북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4.6) 이후 6년여 만이다. 국내 발생했던 최대 규모의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 남남서쪽 8.7km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8)이다. 재난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순)를 발령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에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부안·김준희 기자, 최민지 기자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넌슐라 상담원영**

적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적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바디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후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더 혜택 무릎 달라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예약대입 **703-354-1515**  
 2층 오픈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HAPPY FATHER'S DAY**  
**파더스 데이 Special SALE**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렌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렌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뚫힌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팬텀2** **펠릭스2**

일시불 구입시 반신욕기 드립니다.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에게 마사지와 자전거가기 운동을 동시에!!

**인마의자인가 의로기자인가**  
 바디프렌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로기기가 된다!

**PHANTOM Medical Care**

**5 YEAR WARRANTY**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KORE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협회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렌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케어워킹 프로그램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킥다이얼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묵직한 에어백
- 손지입 패드
- 강화된 안전센서
- 3단계 온열
- 자동 체형 인식
- 다리길이 자동 조절

내 집에 **쓱** 내 몸에 **쓱**

지금껏 달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특가 세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신속히 알아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휴표 휴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속성하여 만든 황토를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면,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면  
 ▶ 후면: 고급대(竹) 자리

원적외선 명품매트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원천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1,199** (원래 \$1,999)  
 싱글사이즈 **\$899** (원래 \$1,199)

버지니아 워싱턴 워던 지정 대리점

**월던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발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치

**\$5,8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영광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방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3간단 편리한 작동 3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 **가성비 최고** **피톤치드** **무도장** **무도장**

**실드 라이프**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몽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달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분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안전** **Safety Zone**

# 야당,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상정 ... '입법독주' 속도전

회부 후 20일 '숙려기간'도 안거쳐 다음달 초까지 본회의 처리 공언 방송3법·양곡관리법도 상정 대기 여당 "거야의 폭주... 정당성 없어"



국회 법사위 첫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 심사를 개시하는 등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소집된 모든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는 '국회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를 반복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2시 민주당 의원 10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한 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정청래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 국가가 아니다. 법사위 열자는 정시에 출발한다"며 방망이를 두드렸다.

개의 16분 만에 민주당 간사를 선임했고, 23분 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안 소위 회부까지 반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박찬대 원내대표 외 의원 170명 이름으로 채상병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제정법

률안인 특검법은 위원회 회부 후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59조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이날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개입한 사안이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가 밝히는 정도로는 안 된다"(서영교), "순직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 사건"(장경태)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7월 초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 발생일(2023년 7월 19일) 이후 1년이 지나면 핵심 증거인 통화기록이 말소될 수 있어, 그 전에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통화에서 "특검 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최장 14일을 고려해 역산했다"고 설명했다.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다른 당론 법안도 줄줄이 뒤따라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방송3법(과방위),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행안위), 김건희 특검법(법사위), 전세사기 특별법(국도위), 양곡관리법(농해수위) 등 22대 중점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장을 이미 장악했다. 과방위와 국도위는

각각 14일,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전세사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행안위도 13일 야당 단독으로 개의해 간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놀고 즐기라고 권력을 위임받았나, 민생회복 지원금과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속도전에 '국회 보이콧'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조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참한다"며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떤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안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보현 기자

## '전·투·력' 상실한 집권 3년차 여당... 농성할 때도 잡담만 했다

(전략) (투지) (역할)

### 현장에서

야당의 주요 상임위 독식 못 막아 전략 없는 지도부에 불만 쏟아져 당내 "없어도 되는 여당이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12일로 사흘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7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한 저항이다. 민주당은 "이대로라면 나머지 7개 상임위까지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임위는 원조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민주당의 독주가 22대 국회를 시작부터 망쳤다. 지적이 많다. 뾰족한 대응책 없이 시종일관 행불무득(行不無得·행동 없이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 일관하는 여당도 책임이 작지 않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집권여당이 국회를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김종민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는 지적이다. 전략·투지·역할을 다 잃은 '전·투·력(역) 상실당'이라는 평가다.

①전략 부재=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로텐더홀에서 조를 짜서 농성하고, 돌아가면서 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식의 대응책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의총 때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상임위에 무조건 안 들어가

는 게 상책인가"(TK 재선), "7개 상임위를 받고 실리를 챙기자"(PK 초선)는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이미 민주당이 가져간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했다.

②투지 실종=최악의 여소야대임에도 야권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의 각오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야당 폭주가 이어진다면 108석인 우리로서는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브리핑했다.

본회의가 열린 10일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선 '웰빙 정당'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의장실 출입문 봉쇄를 논의하던 국민의힘 의원 몇몇은 현장을 지켜보던 기자들에게 "당신들이 여기 문을 잘 지키라"(의장이) 못 나오게 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시각 홀바닥에 앉아 초선과 잡담하던 중진 의원은 취재진이 나타나자 "여기서 이빨 드러내고 웃다가 카메라에 찍하면 큰일"이라며 피켓으로 얼굴을 가렸다.

③역할 소멸=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기 위해 상임위 대신 자체 특위 14개를 가동한다"는 걸 대책으로 내놔다. 하지만 당초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을 논의하려던 외교안보특위는 '원내 사정'을 이유로 12일 불발됐다. 회의를 연 재정경제특위도 기재부 관계자 등을 불러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폐지를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끝났다.

입법권이 없는 특위에서 국정을 논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당내에는 "22대 국회 내내 야당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국민의힘은 '없어도 되는 여당'이 됐다"는 등의 걱정과 푸념이 가득하다.

◆당 대표 선출, 당원투표 100% 폐기=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당원투표 100%'인 현행 당 대표 선출 규정을 폐기하기로 한 데 반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당 대표 선출 시 당원투표 대 일반여론조사 비중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특위원 7명 중 당심 대 민심 '7대3' 안과 '8대2'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각 3명이었다고 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회의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포함 한 료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세롬·김기정 기자

## 방통위원 임명장 못받고 과방위장 움켜쥔 최민희... 야당 "복수혈전 시작"

김어준 유튜브서 "방통위법 개정" 일각 "정치적 편향성 우려" 지적

최민희(사진) 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거야 '입법 독주' 속도전의 선봉으로 나섰다.

최 위원장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이

많이 진행됐다. 그걸 중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방송3법 개정안을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3법에 자신이 발의한 방통위법을 얹어 '3+1'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

다. 최 위원장이 지난 5일 '방통위구출법'이라며 발의한 방통위법에는 방통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선 대통령이 추천하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방통위원 5인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야당 당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



천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미루자 그해 11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런 연유로 그가 과방위원장이 되자 민주당에서는 "복수혈전이 시작될 것"(보좌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 위원장은 "제 입으로 자랑하는 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투력과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인선에) 고려했다'고 얘기하더라"며 스스로 자신의 전투력을 과시했다. 위원장 선출 이튿날(11일)엔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야

당 료 간사(김현 민주당 의원)도 속전 속결로 뽑았다.

일각에선 역풍과 함께 그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을 당시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방통위는 정파를 초월해 독립적 역할을 할 위원들이 필요. 한데 그런 역할에 적합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 위원장을 공개 비판한 일도 있었다. 정용환 기자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www.GIANTREALTY.com

#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 대학병원 휴진만 하루 2만건 진료 변경해야

(분당서울대병원 기준)

외래 중단 우려, 응급실 등은 운영 “출산 임박 임신부는 받아주겠죠” 환자들, 잇단 휴진예고에 불안감

세브란스병원 소속 연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하루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고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하기로 한 데 이은 결정이다.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이 확산하면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연세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의협 휴진에 동참하고, 27일부터는 정부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 시행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산하에는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다. 비대위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9~11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735명 응답자 중 ‘무기한 휴진 입장을 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한 비율이 72.2%에 달했다. 비대위는 휴진 범위에 대해 “응급실·중환자실·투석실·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시술”이라고 명시했다. 또 다른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성

모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의대 교수들은 일단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하루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가톨릭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들 60%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이 중 75% 이상이 휴진을 통한 정부에 대한 항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무기한 휴진 등의 추가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 총회 후 입장문을 내고 “18일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행동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대의대는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교수진 대상 설문조사에서 소속 교수 64.7%가 응답했고, 응답자 93.7%가 18일 휴진에 찬성했다. 이로써 의협의 18일 휴진에 빅5 병원 모두 가세하게 됐다.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가 아닌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과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는 유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명령 ‘철회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 휴진중단 촉구 집회에서 한 환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상태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직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 서울대 교수, 직접 휴진 안내 고려

의대 증원 규모와 관해서는 의대 교수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의협이 18일 전면 휴진을 결의하면서 2025학년도 증원 절차 중단을 요구한 것과는 결이 다른 셈이다. 안석균 연세대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일단 우리 교수들은 나가 있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지원자이고 옹호자인 것이지,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증원에 대한) 협상안을 제시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다”고 말했다.

### 고위험 임신부 “전원하려 했는데 불안”

주요 대형병원들이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출산 예정일이 임박했거나 고위험인 임신부들은 의료대란 속에서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 12일 인터넷 맘카페에는 출산 임박 임신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 임신부는 “뇌질환이 있어 7월 말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예정이었다”면서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소식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초진이라 취소될 것 같다. 뇌질환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를 못 하면 일반 산부인과에서 안 해주려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적었다. 임신부들 우려가 커지자 전국 200개 분당병원이 속한 대한분당병원연합회는 이

날 회원 의사들과 정상 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인영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교수들에게 “당신들이 지켜야 할,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4기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내몰고 긴급한 시술을 2차 병원으로 미루고 항암과 수술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김태현 한국구개리연맹회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로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며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의사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28년째 루게릭병 투병 중인 김태현 회장은 대독자를 통해 정부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는 고소·고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만약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받지 않게 강제성과 (의사들의) 책임,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수현·채혜선 기자

## “아빠는 잘 지내”... 이중섭 미공개 편지화 3점 첫선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화가 이중섭은 일본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생전 1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중섭은 글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열망을 그림으로 담았고, 이런 그의 편지는 오늘날 ‘편지화’라 불린다. 13일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개막하는 전시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12월 29일까지, 유료)에서 이중섭의 미공개 편지화 3점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신사임당부터 김환기까지 유명 작가 15명의 작품 40여 점을 소개하는 대규모 소장품 전시의 일환이다.



이중섭의 미공개 ‘편지화’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사진 서울미술관]

전시작은 이중섭의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통의 편지 중 일부다. 이중섭이 큰아들 태현에게 보낸 편지 1장과 삼화 편지 2장으로,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절절히 담겼다. 이중섭은 “아빠는 건강하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썼고, 삼화에는 잠바를 입고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과 두 아들이 아내 야마모토 양쪽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편지 봉투에 적힌 날짜로 1954년 10월 28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전시장엔 이중섭이 아내에게 결혼 전 보냈던 연서화 6점도 함께 걸렸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화면에 담긴 자유로운 남녀의 모습을 담은 그림 ‘사랑의 열매를 그대에게’(1941) 등이 ‘로맨티시스트’ 이중섭의 면모를 드러낸다. 서울미술관과 이중섭의 인연은 각별하기로 유명하다. 서울미술관을 설립한 안병광 유니온그룹 회장은 1983년 제약회사 영업사원 시절 비를 피하고자 섰던 명동성당 근처 액자가게 앞에서 그림 한 점에 매료됐다. 이중섭의

‘황소’였다. 그날 종이에 인쇄된 복제품 ‘황소’ 그림을 산 그는 “언젠가 내가 진짜 그림을 사겠다”고 다짐했고 2010년 이중섭의 유화 ‘황소’(1953) 원작을 35억6000만원에 구입했다.

또 30년간 수집해온 한국 근현대 작가의 대표작 등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2012년 서울미술관을 개관했다.

이번 전시엔 이중섭 작품 외에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추사 김정희의 행서 대련 등 조선시대 미술부터 김기창·김환기·이우환·정상화 등 한국 근현대 주요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나왔다.

이 중에서도 이우환의 대형 작품 ‘대화’(2020)는 그동안 흔히 볼 수 없던 것으로 특히 눈길을 끈다. ‘대화’는 관람객이 명상하듯 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히 조성된 ‘무한의 공간’에서 선보인다.

이 밖에 김환기의 ‘십만 개의 점’과 정상화의 ‘무제’ 연작, 이우환의 ‘바람’, 서세옥의 ‘사람들’, 김창열의 ‘회귀’ 등이 내로라하는 거장들의 작품이 한 공간에 전시됐다.

이은주 문화선임기자



‘BTS 망향’ 진 전역 12일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은 이날 휴가를 내고 현장을 찾아 진의 전역을 축하했다. 특히 군악대에서 복무하는 RM은 색소폰을 들고나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비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등’은 모호하다

“서울, 부산, 대전 등을 찾는다.” 두리몽실하다. 서울·부산·대전 외에 다른 도시도 찾는다. 서울·부산·대전만 찾는다. 건지 모호하다. 쓴 사람만 알 수 있다. 다른 도시도 찾는다. 찾은 것이었다면 쓴 사람은 나머지 도시를 다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다. 나열된 세 도시만 찾은 것인데도 ‘등’을 붙였다면 습관이다.

‘등’은 이처럼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열거한 대상 외에 더 있거나, 열거한 그것만이거나. 1970년대 후반 발행됐던 월간지 ‘뿌리 깊은 나무’는 그래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기도 했다. 뜻이 분명하지 않은 건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잡지처럼 ‘등’을 안 쓰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대상을 몇만 열거하는 게 나은 상황도 얼마든지 있다. 그 밖에는 덜 쓰는 게 문장의 모호함을 줄여 준다.

서울, 부산, 대전 세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서울, 부산, 대전’을 찾는다’가 좋겠다. 흐름상 ‘등’을 넣는 게 부자연스럽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세 곳을 찾는다’고 하면 정확해진다. ‘등’은 또 ‘춤을 추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에서처럼 ‘는’ 뒤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렇다고 모든 ‘는’ 뒤에 ‘등’이 오는 건 아니다. ‘춤을 추다’의 ‘추다’처럼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서만 ‘등’이 와야 자연스럽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이슈 진단

경찰의 존재 이유



이무영  
뉴미디어국장

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총격이 발생했다”는 LAPD의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걸 본말이 전도된 설명이다. 만약 강도나 인질극을 벌이는 범죄자를 제압하려는 상황이었다면 LAPD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양용씨는 부모님 집 거실에 혼자 있었고, 누구에게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도 아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찰이 정신질환자인 양용씨를 범죄자로 보고 체포작전에 들어간 것부터 잘못된 판단이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범죄자로 보고 대응한 경찰의 마음가짐부터 잘못됐다.

이 사건은 경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LAPD 공식웹사이트 홈페이지에는 “To protect and to serve”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에게 봉사한다는 것일까? 당연히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시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총기를 사용하는 범죄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경관의 대응에 총기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지난 2018년 7월21일 실버레이크 지역 트레이더 조 마켓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던 멜리 코라도(당시 27세)는 경찰의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

경찰 추격을 피해 트레이더 조 마켓으로 뛰어든 진 에번 애트킨스(당시 28세)를 향해 경관 2명이 여러 차례 총을 발사했고 코라도가 그중 한 발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마켓 안과 밖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경관들은 범죄자를 잡는데 집중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여동생을 잃은 알버트 코라도씨는 “시민의 세금으로 10만 달러나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정작 시민을 보호해야 할 때를 구분 못하고 무조건 총부터 쏘는 LAPD는 양용씨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총기 사용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과도한 총기 사용 문제는 양씨 가족과 코라도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가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LAPD는 양용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의 존재 이유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경찰의 존재 이유를 불신하는 시민이 더 늘어나기 전에.

J네트웍

‘땡시 뉴스’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로 나오지는 않았다. 아예 없을 때도 잦았다.

‘신문렌보’는 시 주석의 권위가 모든 사안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공 시절의 ‘땡시 뉴스’를 연상케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경제와도 관련된 문제다. 중국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던 건 ‘권위주의의 연성화(軟性化)’다.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당의 권력을 조금씩 풀었다. 그만큼 민영 부문의 영역은 넓어졌다. 그래서 나온 말이 ‘56789 경제’다.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기술 혁신의 70%, 고용의 80%, 기업 수의 90% 이

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당이 일을 안 해 만든 ‘성과’다.

시진핑 집권기 들어 역류했다. 당은 풀었던 권력을 다시 죄기 시작했다. ‘먼저 부자가 돼도 좋다’는 선부(先富)의 열망은 ‘함께 부자 되어야 한다’라는 공동부유의 이데올로기에 눌러 위축됐다. 민영보다는 국유 부문이, 시장 자율보다는 정책 조정이 더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역점 산업 분야에 돈이 몰리고, 그쪽만 성장한다. 전 기차, 전기 배터리, 태양광 등이 그런 식으로 컸다. 국내 시장은 위축됐는데 제품은 쏟아지니 기업은 해외로 제품을 밀어낸다. ‘디플레 수출’이라 비난받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 실업 등 많은 경제 문제가 ‘권위주의의 경성화(硬性化)’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데올로기를 강조한 정책이 시장 자율을 압도한 결과라는 얘기다. 오늘도 이어질 신문렌보의 ‘땡시 뉴스’는 이를 상징하고 있다.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 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담화문 감수부터 회고록 대필까지... 3김도 내 글솜씨 탐냈다

**이문열, 시대를 쓰다(8)**  
**권력자들과의 인연**

2004년 총선 공천심사에 관여했지만, 사실 정치와의 인연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 글에 논리와 감동 구조, 미학성이 있다고 여긴 정치권이 먼저 접근해 왔다. 권력자들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게서 말과 글을 빌려가고 싶어 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친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그들 덕을 본 건 없지만 이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전의 삶은 아주 사적이었다. 하지만 작가로서 작품을 발표하고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해 발언하고 제안하고 간섭하고 비평하게 됐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하나였던 중간평가가 골치거리였다. 그는 1987년 대선(12월 16일) 직전, 이듬해 서울올림픽이 끝난 다음 그간의 민주화 이행 실적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노라고 발표했다. 6공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박철언 정책보좌관은 중간평가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을 설득해 사실상 중간평가 유보 발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문제는 유보 선언 문안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유보 선언이 1989년 3월 20일이었으니 그 며칠 전이었던 것 같다. 임흥철 당시 청와대 정부담당 비서관이 도와달라고 했다. 내가 유보 선언 담화문을 직접 쓰지는 않았다. '중간평가는 약속 실천의 문제이지 여야 대결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같은 대목의 문장을 가다듬어줬다. 기여도가 그리 대단치 않았을 것이다.

### YS 댄 사고 많아 수차례 대국민사과

YS 정부 때는 사건·사고가 많았다. 배가 가라앉고(서해훼리호, 1993년) 다리가 주저앉더니(성수대교, 1994년) 백화점이 무너졌다(삼풍백화점, 1995년). 아들 김현철씨가 연루된 1997년 한보 사태까지, 김영삼 대통령은 열 차례 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사과 담화문 문안을 봐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과 글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했다. 정권 초기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관심사였다. 나는 박정희처럼 조국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온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떠밀려서 이 자리에 섰다'는 식으로 방향을



1988년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야권 통합 압력이 거세지자 DJ는 평민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잠적했다. 잠적에서 돌아와 이문열씨(오른쪽)와 대담하는 모습. [사진 주부생활]

**전두환, 말·글 빌려달라 부탁해와 "나라 구하려 나왔단 말 말라" 조언**  
**노태우 중간평가 유보선언 당시엔 도와달라 요청에 문장 가다듬어줘**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 조언을 두고두고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 80년대엔 대통령이 문인 식사 초청

1980년대 문학의 위상은 지금과 달랐다. 대통령이 으레 문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 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자주 불렀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절하곤 했다. 1984년 서울로 이사 오고 나자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청와대 식사 자리에 참석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이 문열씨는 한 번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들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기차 타면 세 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안 오더니, 이제 서울 왔으니 앞으로 밥 먹으러 와야지 뭐”라며 농담조로 타박했다. 그래서 나도 “별건 아닙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밥 한 그릇 먹자고 청와대 가서 만나는 건 좀 아니었으면 했

습니다. 사르트르도 드골 대통령을 만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응수했다. 한 번은 장남 전재국씨를 내게 소개하며 앞으로 나를 형님처럼 모시라고 하길래 속으로 ‘내가 그럼 당신 아들이란 말인가’ 생각했던 적도 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어떻게 전두환·노태우 정권을 도울 수 있느냐고. 전라도 입장에서 재앙과도 같은 사람도 아닌가. 여기서 또 뒤집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게 내 생각이었다. 이미 짙은 의어 밥이 됐는데, 여기서 또 뒤집는다면 그다음에는 누가 온단 말이나, 이렇게 해서 안정시켜 나가자, 그렇게 생각했다.

YS와 DJ는 잡지사 주선으로 처음 만났다. 1980년대는 잡지 전성시대로 갔다. 군고구마 장수도 시사지를 읽는다고 했다. 여성지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다.

1988년 봄 DJ는 코너에 몰려 있었다. 1987년 대선에서 YS와 단일화에 실패, 노태우에게 대권을 내주자 8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 압력이 거세졌다. 민주당 김영삼 총재는 일찌감치 총재직에서 물러났지만 DJ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평민당 총재직에 연연하다 3월 중순에야 사퇴하고 잠적했다. 잠적 며칠 만에 돌아와 심경을 밝힌 매체가 여성지 주부생활이

**YS·DJ는 잡지사 주선으로 첫 만남**  
**YS, 날 설령탕집에 데리고가 자랑**  
**DJ 자택선 금굴 껍질 까먹는 실수**  
**권력자 대부분 회고록 써달라 요청**

“있었다. 주부생활 주선으로 DJ를 만났고, 4월호에 ‘김대중-이문열 대담, 통합은 안 되고 나만 물러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다.”

### YS·DJ 중심 야권통합 어렵다고 봐

나는 YS·DJ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봤다. 서로에 대한 인정이나 존경의 동질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단일화가 될 텐데 두 사람은 그런 면에서 너무 맞지 않았다.

1985년에는 월간조선이 주선해서, 92년에는 대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신동아가 주선해서 두 사람을 나란히 인터뷰했다. 신동아 인터뷰는 제3의 후보였던 정주영씨까지 낀 것이긴 했다.

1985년 DJ 자택 인터뷰 때 저지른 실수가 기억난다. 당시 DJ의 식탁은 지방의 지지자들이 보낸 싱싱한 먹거리가 가득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목포 앞 바다에서 헤엄치던 놀입니다, 하는 식이었다. 제주도 친구가 보냈으며 맹자 비슷한 과일도 DJ가 권하길래 껍질을 벗기고 먹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껍질째 먹는 금굴이었던 것 같다.

YS는 “세계에서 가장 설령탕 잘하는 집”이라며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봉희설령탕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YS 사돈과 교회 장로인 퇴역 장군을 만나는 사적인 자리였다. YS는 자주 만나야 정 든다며 한 달에 한 번은 사돈을 만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었다. 1992년 10월호 신동아 원고는 ‘작가 이문열의 3당 후보 집중 인터뷰-그들은 과연 우리 시대의 영웅인가’가 제목이었다. 1985년에 비하면 나는 여유가 좀 있었다. 세 사람의 말을 객관적으로 전하려 했다. 그러면서도 부담스러운 질문을 서슴지 않았다.

YS의 아픈 곳은 어눌한 말솜씨였다. 지적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자질문을 꺼내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의 지적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더욱 키운 것은 부족한 수사력(修辭力)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잘 짓는 게가 반드시 좋은 게는 아니요, 말 잘하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에 비하면 DJ는 노련한 정치가 같았다. 옆의 참모들까지 모든 게 계산돼 있는 듯했다. 특히 자택 사재가 내 서재의 서너 배 크기였던 것 같다. 수만 권 장서가 꽂혀 있었다. 읽은 책도, 읽지 않은 책도 있었을 것이다. 과연 저런 책도 읽었을까 싶은 경우도 있긴 했다.

워낙 아는 게 많고 말을 잘하다 보니 옆에서 토를 다는 경우가 드물어서였는지 그를 두고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였으리라 생각한다.

### JP 회고록은 주수도가 찾아와 제안

권력자들은 대부분 내가 전기나 회고록을 써주기를 바랐다. 나는 그때마다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아직 그런 글을 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회피하곤 했다.

DJ 측근들은 1993년 일본 NHK의 4부작 시리즈 ‘김대중 일본에의 자서전(キム・デジュン 日本への自叙伝)’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자 DJ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다. DJ가 ‘이문열이 시나리오 써준다면 해보라고’ 했다고 들었다. 한 PD가 찾아와 뭐든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JP 회고록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찾아와 제안했다.

회고록 집필에 가장 적극적인 건 YS 측이었다. 아들 현철씨는 YS가 현직일 때 회고록을 내고 싶어 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작가가 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써준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했더니 미국 작가 그레이엄 그린 등 현직 대통령 전기를 쓴 유명 작가 70명의 리스트를 들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왔다.

그렇다면 가상소설 형식으로 쓰면 어떻겠냐며 200자 원고지 25쪽 분량의 줄거리를 제시했다. 평생 라이벌이자 동지였던 DJ를 YS가 후계자로 점찍는 마무리였다. 현철씨가 낯빛이 변해 찾아왔다. 회고록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 발표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 3월 20일 자 지면. 1995년 12월 16일 김영삼 대통령이 문화계 인사 6명을 초청해 오찬에 앞서 인사하는 장면. 왼쪽부터 지휘자 금난새씨, 배우 김해수씨, 이문열 작가, 김영삼 대통령. [중앙포토]

##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렌더 지역]

### 시 설

##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차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로써 이대표는 동시에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 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과 이번에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이다. 어느 것이든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이대표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당히 무겁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불법 자금 수

**검찰, 대북 송금 제3차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 재판 지연 시도 멈추고 방탄 특검법 포기해야**

백만 달러를 제공한 게 이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대표의 방북 요청이 아니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게 사실이라면 국내법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까지 위반하는 국제적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진실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지극히 실망스

럽다.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의석수만 믿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아닐 수 없다. 특검을 국민의 의혹 해소기 아닌 특정인의 방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 일부에선 이번 사건의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들 셈인가.

법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 대표에 대한 네 개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오직 법리와 증거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늦어지면 정치·사회적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벌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권' 해석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을 상대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자격까지 좌우하는 사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지연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이 대표도 재판 지연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 벼랑 끝 중기·자영업...막힌 최저임금 숨통부터 뚫어 보자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27.5%가 신용등급 C등급 이하였다. 10곳 중 3곳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나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의미다. 중앙일보 어제(6월 12일) 자 기획기사 내용이다. 자영업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자영업 폐업률이 10%에 육박하며 최근 1년 새 자영업자 9만4000명이 줄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기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불황 탓이 크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기본 투입 요소가 다 비싸졌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이후 올해까지 7년간 52.4%나 뛰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부진을 이유로 사실상 금리 인하를 주문할 정도로 돈값도 비싸졌다. 그러나 사업이나 장사가 제대로 될 틈이 없다.

그렇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상황도 아니어서 더 답답하다. 제도와 기업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옛그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98%가 최저임금 인하·동결을, 88%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원한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엄살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1만 명에 달한다. 농림어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 비율이 30%를 넘는다.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고려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바뀌어

야 한다. 그동안 당장의 어려움을 피한다고 단기 대증요법에 치중해 온 잘못도 있다. 부실을 방지하면 나중에 고통이 더 커진다. 경제도 우리 몸처럼 신진대사가 잘 돼야 제대로 돌아간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체는 살리되, 경쟁력을 잃은 한계 사업장은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폐업과 전업(轉業)을 지원하고, 재취업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

책상머리에선 언제나 구조조정이 정답이지만 실제 현장의 구조조정은 36.5도 체온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전제돼야 현장의 구조조정을 설득할 수 있다.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을 보듬는 건 양극화를 막고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통계상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다지만 집값 급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렸다. 복지 기준선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내년 추가 인상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은 거대 야당의 현금성 복지 포퓰리즘을 억제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 심판 공격과 민주주의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세계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를 분석했다.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엔 '심판 매수' 파트가 있다. 여기서 심판은 법원과 검찰, 국세청, 규제 기관 등을 가리킨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이는 사법부 장악이 독재자들이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는 의미다. 그런데 사법부에 자기 편을 심고 입맛대로 부리려는 이가 독재권력뿐일까. 의회 권력이라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최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들끓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심판' 성토다. 민주당의 국회 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씨 판결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여기서 심판은 판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판사를 선거로 뽑는 사법제도 개편을 시사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선출되기를 바라는 심판은 자신들의 관점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일 것이다. 섬뜩하다. 정치권력이 옹호하는 이가 심판으로 뽑히고, 그 심판이 권력의 손을 들어주는 나라에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숨쉬기 어렵다.

위의 책에서 심판 매수다음 단계로 거론되는 것이 심판 해임이다. 심판이 말을 안 들으니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 포퓰리즘의 문을 연 페론 대통령, 페루를 장기 통치하며 사실상 독재정치를 펼친 후지모리 대통령 등 여러 사례가 있다.

민주당은 이씨 사건과 관련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윤석열 대

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종의 심판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들에 대한 대대단 검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거대 권력이다. 검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의결된다. 171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할 수 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씨 선고 판결이 1심이라는 사실이다. 징역 9년6개월이 중형이긴 하지만, 이씨가 결백하다면 2심에서 얼마든지 다뤄볼 수 있다. 게다가 대법원도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별때처럼 들고 일어나 심판을 공격한다. 자연스러운 의문 하나는 이씨 재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 없어도 그랬을까 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

### 이화영 유죄 선고에 민주당 반발 '판사 선출' '검사 탄핵' 등 주장 사법부 흔들리면 민주주의 위태

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법사위는 특검법 소관 상임위원이자 검찰과 법원을 관할한다. 그 법사위가 이 대표 방탄에 동원될 것이라던 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익과 당리를 위해 공적 시스템을 악용하는 게 된다.

보수층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해 "국가 지도자답게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다. 여당의 보수 개편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나서는 모습에 이 대표를 달리 보게 됐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당내에서 쏟아지고 있는 검사 탄핵 주장과 판사 공격을 방치하는 이 대표의 모습은 지도자다운 모습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도자라면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거친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참,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지금의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얘기 아닌가. 수석논설위원

###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NE 13th - JUNE 20th, 2024**



**KOTO MINI BBQ CHARCOAL GRILL**

**고토 미니 차콜**

**바베큐 화로구이**

14 X 10.5 X 9.5 IN/EA

~~Reg. \$14.99~~

**\$8.99**

*Dr. Chung's Food*

**DR. CHUNG'S FOOD RICH SOYBEAN SOUP GIFT SET**

**정식품 진한 콩국물**

~~Reg. \$14.99~~

**\$8.99**



32 FL OZ X 4 EA/PKG  
(2 PLAIN + 2 BLACK SOYBEAN)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 [UN 참전용사 감사 행사]

우리는 북한이 남침한지 74년으로 6.25 전쟁의 만행을 상기하며 U.N 우방국들이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켜 주었고, 지원하여 준 것을 기억합니다. 조국을 지키고자 목숨을 버리고 싸우다 전사한 전우들을 기억하고 6.25 전쟁의 사실을 알리고 반공의식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상기대회를 갖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6.25 참전 유공자와 가족, 워싱턴 교민 등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전투부대 파병국

전투부대 파병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스웨덴



인도



덴마크



필리핀



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 일시: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정오 12시
- 장소: 한인커뮤니티센터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문의: 202-701-8183 (신진군 행사 부회장)

### 행사

- 공로패 수여 ■ 유공 표창 수여 ■ 봉사자상 수여
- 백수탑 및 기념품 증정(정규섭, 박판갑) ※ 6.25전쟁 상기대회 기념품 증정



전투부대 파병국 / Combat Unit 한국군 전사자 16만2천명 / 민간인 사망자 2백만명

국명 Country	연참전병력 (명) Number of Military (Yearly)	참전군별 Dispatched Troops	전사자수 (명) Death in battle
미국 (USA)	1,600,000 (전시참전/participation in whole wartime)	육·해·공·해병 Army, Navy, Air Force, Marine Corps	33,870
영국 (UK)	56,000 (1957년 철수/Withdrawal in 1957)	육·해·공·해병 Army, Navy, Air Force, Marine Corps	1,109
호주 (Australia)	20,000	육·해·공군 Army, Navy, Air Force	340
캐나다 (Canada)	27,000	육·해·공군 Army, Navy, Air Force	516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5,320	육·해군 Army, Navy	123
뉴질랜드 (New Zealand)	5,350	육·해군 Army, Navy	41
프랑스 (France)	3,760	육·해군 Army, Navy	262
터키 (Turkey)	66,000 (1966년 철수/Withdrawal in 1966)	육군 Army	765
필리핀 (The Philippines)	7,500	육군 Army	112
태국 (Thailand)	24,000 (1972년 철수/Withdrawal in 1972)	육·해·공군 Army, Navy, Air Force	132
그리스 (Greece)	4,400	육·공군 Army, Air Force	183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900	공군 Air Force	37
이디오피아 (Ethiopia)	6,200	육군 Army	121
콜롬비아 (Columbia)	5,100	육·해군 Army, Navy	214
벨기에 (Belgium)	3,590	육군 Army	106
룩셈부르크 (Luxembourg)	89	육군 Army	2

의료부대 파병국 / Medical Unit

국명 Country	지원규모 Scale of Aid	인명피해 Deaths	연의료진수 Number of Medical Workers (Yearly)
스웨덴 (Sweden)	야전병원부대 / Field Hospital		380
인도 (India)	야전이동병원부대 / Mobile Field Hospital		346
덴마크 (Denmark)	병원선 1척 / 1 Hospital Ship	3	630
노르웨이 (Norway)	이동외과병원부대 / Mobile Surgical Hospital		623
이탈리아 (Italy)	적십자사병원부대 / The Red Cross Society Hospital		185
독일 (Germany)	서독적십자사병원 / The Red Cross Society Hospital		120

후원 주미 한국대사관 /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 K.W.V.A

주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지회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une 13, 2024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관련법 꼼꼼히 확인 후 공사 시작하라

**차고 개조 이렇게**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사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홈오너들이 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간을 넓히고 싶은 홈오너들은 거라지 개조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주로 홈짐, 홈오피스, 홈바 등으로 개조가 인기가 있다. 그러나 거라지 개조는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바닥, 벽, 단열재까지 추가해야 하는 꽤 큰 공사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시대에 거라지 개조는 추가 건물 증축 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홈오너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다. 차고 개조를 고민하고 있는 홈오너들을 위해 차고 개조의 장단점 및 공사 시 고려 사항 등을 알아봤다.



차고 개조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뒤 필요한 허가서를 취득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Unsplash.com 제공)

## 불법 증축 금물, 공사 허가 꼭 받아야 차고 제거 판매 시 되레 불리할 수도

**▶고려사항**  
차고 개조의 최대 장점은 마당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도 적잖다. 차고 개조의 최대 단점은 당연히 개도 차고가 사라진다는 것. 더욱이 향후 주택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예비 바이어들에게 차고 없는 집이 매력적일까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많은 바이어들은 안전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큰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또 적잖은 비용을 들여 실시한 차고 개조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차고를 없앴을 시 법적 혹은 조닝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차고 개조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배수관, 하수관, 창문, 전기 배선 공사 시 필요한 법적, 기술 표준도 충족해야 하며 시정부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차고 개조는 비용이 많이 드는 리모델링 중 하나인데 증축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동등 수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과정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조 후 어떤 혜택이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이후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비용**  
주택개조 정보 플랫폼들에 따르면 바닥, 벽, 페인트 작업 등 차고 전체를 개조할 경우 약 6000~2만70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미 전국 평균은 1만6000달러인데 개조 비용은 차고 크기, 개조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차고 문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200달러. 또 전기 배선, 배관, 냉난방 시스템을 추가하면 4000~1만달러가 더 들어간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차고 개

조 후 10분 이상 머물 공간이라면 단열재 설치와 냉난방 시스템은 필수”라며 “비용 절약을 위해 이 공사를 간과하면 그 공간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조공사**  
보통 차고 벽과 천장에는 단열재가 없다. 따라서 차고를 홈오피스나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건식벽 (Drywall)이 설치돼 있을 시 이를 제거한 뒤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벽 단열재로는 주로 유리섬유 (fiberglass roll), 락울 (rockwool), 스프레이폼 (sprayed foam) 등이 사용되고 천장은 유리섬유 (fiberglass batts) 단열재가 사용된다. 차고 바닥도 손봐야 한다. 차고 바닥은 보통 집보다 낮게 건축되므로 개조 시 필요하다면 목재를 이용해 바닥을 높여 집과 바닥 높이를 맞출 수 있다. 바닥재는 라미네이트, 타일, 목재, 바닐 등 다양한데 가격은 라미네이트의 경우 평방피트 당 약 7달러이며 타일은

13달러 수준이다. 주거 공간으로 개조 시 자연 채광과 환기를 위해 창문도 필요하다. 일부 시 정부는 차고를 주거공간으로 개조 시 창문 크기를 규정하는 등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 벽에 스위치 및 콘센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만약 홈오피스로 개조를 원한다면 전기 콘센트가 1개 이상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도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 냉난방 시스템의 경우 시정부가 요구하는 규제사항에 맞춰 중앙냉난방 덕트 확장 및 에어컨을 추가 설치해야 할 수 있다.

**▶개조 시 유의사항**  
만약 차고를 홈오피스로 전환할 경우 바닥재와 소리 울림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사무실 용 바퀴 달린 의자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닥재는 타일 보다는 라미네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주현 객원기자  
**▶6면 '차고 개조'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혼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엔비디아 비싸서 못산다? 대안 떠오른 신상 ETF

‘보고도 못 믿겠어’ ‘당신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대장의 품격’ ...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직후 국내 증권사들이 낸 보고서 제목이다.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탄복하는 모습이다. 올 상반기 주식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엔비디아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였다. 이제라도 ‘가진 자’ 대열에 합류해 볼까 싶지만, 실적 발표 뒤 다시 무섭게 오른 ‘천비디아(주가 1000달러+엔비디아)’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이제 세계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MS) 추월을 앞두고 있다. 엔비디아 못 산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

우선, 새로 출시된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반도체 ETF가 반도체 전반에 투자했다면 ‘신상 ETF’의 특징은 ‘세분화’다. AI(인공지능)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에만 적극 투자하는 ETF가 있는가 하면, 아직 덜 오른 한국내 ‘전공정(pre-process)’에만 투자하는 ETF도 있다. 투자자로서 내가 원하는 핵심 테마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 셈이다.

다만 ETF로 투자하든, 개별 기업에 투자하든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은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이다.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고도 남았다. 매출은 260억4000만 달러(약 35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62% 치솟았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를 비롯해 핵심 관심사를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투자자의 1차 기준은 상품의 과거 수익률이다. 하지만 신상 ETF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익률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ETF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그 결과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머니랩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업(종목)들을 담았는지 ‘범위’에 따라 반도체 ETF를 뜯어봤다. ‘원조 반도체 ETF’가 산업 전반에 두루 투자한다면, 최근 6개월 안에 출시된 ETF는 특정 기업에 더 집중 투자한다.

최근 출시된 글로벌 반도체 ETF는 증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AI 테마에 집중한다. 일례로 키움자산운용의 ‘KOSF 글로벌AI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AI와 관련이 깊은 기업들만 골라 투자하는 ETF다.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IP) 기업인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설계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이를 위탁생산(파운드리)하는 TSMC 등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에 AI 반도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은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았다. 기존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이 30개 종목, ‘KODEX 미국반도체MV’가 26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15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도 특징이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AI반도체첨메이커’는 투자 대상을 더 좁혔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칩 설계(팹리스) 기업에만 투자한다. 포트폴리오는 엔비디아·AMD·인텔 등에 집중하고, TSMC 같은 위탁생산 업체나 ASML 같은 장비 업체 등은 아예 담지 않았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AI반도체 칩의 핵심은 ‘노브’에 해당하는 ‘설계 능력’이라며 “생산은 위탁해 버리니까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고, R&D(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만큼 기술 발전도 더 빠른 주도주”라고 설명했다.

한국내 반도체 ETF 전통의 강호는 2006년 상장된 ‘KODEX 반도체’와 ‘TIGER 반도체’다. 이 두 ETF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

자한다면 새로 나온 반도체 ETF는 중소형 소부장(소재·부품·장비)주에 집중 투자한다. 김현빈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개인이 개별 종목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보다 육석 가리기가 필요한 ‘소부장’주에 ETF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주이안]

## 엔비디아에 많이 투자하는 ETF 순위

※채권환상상품과, 커넥티드 등 배당 상품은 제외. 5월 23일 기준

- 1 KOSF 글로벌AI반도체
- 2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 3 SOL 미국AI반도체첨메이커
- 4 TIMEFOLIO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
- 5 KODEX 미국서학개미
- 6 KODEX 미국반도체MV
- 7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
- 8 KBSTAR 글로벌메타버스 Moorgate
- 9 TIGER 글로벌AI액티브
- 10 ARIRANG 미국테크 10iSelect

자료: ETF CHECK

## 신상 반도체 ETF

5월 23일 기준	현재가	순자산	총보수	발행사명	상장일
SOL 미국AI반도체첨메이커	1만570	241억	0.45%	신한자산운용	2024. 4. 16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1만85	45억	0.45%	NH-Amundi자산운용	2024. 2. 27
SOL 반도체전공정	1만660	139억	0.45%	신한자산운용	2024. 2. 14
SOL 반도체후공정	1만4735	327억	0.45%	신한자산운용	2024. 2. 14
WOORI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1만1895	1,038억	0.31%	우리자산운용	2024. 1. 16
KOSF 글로벌AI반도체	1만4380	386억	0.40%	키움투자자산운용	2023. 12. 21
KOSF 글로벌전력반도체	9390	28억	0.40%	키움투자자산운용	2023. 12. 21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1만3390	1,519억	0.45%	미래에셋자산운용	2023. 11. 21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1만4230	2,556억	0.39%	삼성자산운용	2023. 11. 21

※음선을 사용하는 ACE 미국반도체15프리미엄배당(합성)은 제외  
자료: ETF CHECK

신상 소부장 ETF인 ‘SOL 반도체소부장’과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그리고 ‘TIGER AI핵심공정’은 종목 구성이나 산출 방식이 비슷하다. ‘AI 반도체’ 등 키워드로 연관 있는 기업을 걸러낸 뒤, 유동 시가총액을 반영해 종목을 고른다. 이에 따라 최근 AI로 주목받고 있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로 손꼽히는 한미반도체와 디바이스 AI의 대표주인 리노공업을 모두 1-2위 종목으로 담고 있다.

차이점을 보이는 ETF는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다. 다른 세 개 반도체 소부장 ETF가 한미반도체를 20% 이상 담고 있는 것과 달리 4%만 들고 있다. 이 ETF는 시가총액 기준 대형주보다, 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으로 투자 비중을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현빈 본부장은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지만 퀀트 기법을 도입해 매출 성장성과 주가 모멘텀이 좋은 종목에 투자하다 보니 최근 많이 오른 한미반도체를 떨어냈다”고 설명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소부장을 한번 더 쪼갬 상품도 내놨다. 한국내 소부장 기업을 다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 투자하는 ETF다. 세분화한 ETF에 투자할 때 장점은 ‘제대로 골랐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세분화 ETF의 경우 높은 변동성도 주의해야 한다. 좁게 투자할수록 주가의 진폭은 커질 /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스타 강사 믿었는데 80% 손실” 부동산 리딩방 주의보

〈투자역〉

# “저는 완벽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유도선수 출신 흡수자 청년이 30대에 건물주가 됐다는 성공 스토리로 부동산 투자업계 스타로 떠올랐던 경매 강사 A씨. 그가 3월 말 블로그에 남긴 ‘80%의 투자 손실’ 고백 글에 수많은 투자자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부동산 아카데미를 통해 수강생에게 함께 투자할 기회를 준다며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진행한 공동투자 프로젝트는 10개 이상으로 투자금액만 1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투자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수강생 간 경쟁 심리를 자극해 투자금을 끌어들이더니 주식으로 치면 상장폐지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손실을 내용 증빙도 없이 그냥 떠넘겨버렸다”며 “그러면서 경매 A씨는 얼마를 투자했는지 계좌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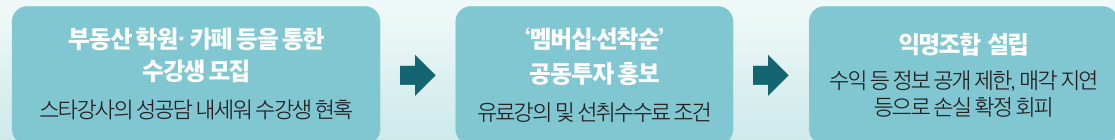
# B씨는 2년 전 경매 공부를 위해 다니던 학원에서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다. 공동투자에 참여하면 1년 뒤 25%의 수익을 더해 돌려주겠다는 것. 이미 낙찰받은 유망 투자 물건에 이른바 손가락만 얹으면 된다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해당 경매학원이 수강생들로부터 모은 투자금은 1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투자 원금이 수익을 더해 환급해주기로 한 시기가 지나자 학원 대표는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 아예 문을 닫고 잠적해버렸다. 수강생들은 수익금은 물론 투자 원금까지 매일 위기에 몰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공동투자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부동산학원의 유명 강사를 중심으로 수강생과 공동투자를 진행했다가 손실을 보자 잠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손실을 보자 어쩔 수 없이 잠적한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공동투자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없다는 틈을 이용해 처음부터 수강생·회원들의 투자금을 노린 사기 행각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공동투자 피해는 대개 부동산 경·공매학원 관련 폐쇄카페에



## ‘몰지마’ 부동산 공동투자 구조



## ‘몰지마’ 피하는 부동산 공투 체크리스트

- 부동산의 수익성을 조사할 수 있나**  
투자 대상인 부동산의 수익성이 어떠한지, 입지는 어떠한지,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 등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전 투자의 성과와 과정은 공개됐나**  
이전 진행한 공동투자가 있다면 결과를 확인, 수익과 손실뿐 아니라 투자 과정은 제대로 공유됐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 ‘멤버십 온리’·대형 부동산 투자 검증**  
경매 초보자들이 검증 없이 덩석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는 마케팅 방식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대형 물건이고 투자자가 많을수록, 투자를 단독으로 철회하기 어렵고 의사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을 유의해야 한다.
- EXIT 전략이 있나**  
출구 전략을 확인,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분양 또는 매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투자금 회수 전략이 있는지 확인한다.

## 경·공매 학원, 투자 카페 사기 속출 유명 강사 주도, 5분 내 투자 마감도 “큰 돈 번다 생각, 보지도 않고 결정”

서 불거지고 있다. 경매는 부동산의 권리분석부터 입찰, 명도 등 부동산 투자 초보자들이 수업만 듣고 바로 실전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분야다. 그러다 보니 유명 강사를 필두로 한 ‘공동투자’가 만연해 있다. 유명 강사나 카페 운영자, 학원과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경매로 큰 돈을 번 유명 강사가 주도하는 투자다보니 내용을 잘 몰라도 수강생이나 카페 회원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에 나선다. 유튜브 ‘현명한부동산투자TV’ 운영자인 C씨는 “대개 학원이 카페 등에서 공동투자자를 모집하면 보통 5분 안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며 “유튜브 등을 통해 팬층을 보유한 유명 강사가 주도하는 투자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경매학원의 온라인 카페 등에 ‘경기도 000 공장 투자, 선착순 00명’ 이런 식의 공지가 올라오면, 해당 학원 수강생들이 투자에 나서는 형태다. C씨는 “다른 곳에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수익이 날까 고민했을 물건도 학원에서 권유하기 때문에 보지

도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원이나 카페, 강사 입장에서 혹은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 A업체의 경우 유료 멤버십으로 300만~400만원 수강료를 내야 공동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경매학원도 고가의 유료 수업을 들어야만 공동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공동투자가 진행되면 관련 수수료를 미리 떼거나 운영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식으로 이익을 낸다. 그러다 보니 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이 앞다퉀 공동투자 사례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중을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수강생들의 돈으로 하는 투자는 일종의 ‘게임머니’와 같다”며 “강사 입장에선 성과가 잘 나면 홍보하고, 수익이 안 나오면 수수료 등을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투자 원금을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다. 부동산 공동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나 이를 모니터링할 기관, 법적 규제 사항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조경호 한길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D경매업체의 경우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100배가 넘어 금융사가 의심된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한선 사법당국이 수사한 후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공동투자는 잘만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큰 돈이 드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강사와 경매 학원은 하자 있는 물건을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개발 가능성이 극히 낮은 토지, 유치권 성립 여부를 속인 물건들도 나온다. 조 회계사는 “공동투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기형적인 이른바 부동산 리딩방에 대해 감독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자의 투자 손실 사례는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투자 결정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경매 공동투자의 경우 대부분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간 정보나 의견을 나누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익명조합을 통한 투자는 운영자가 상당한 재량과 전권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삼가는 게 좋다. 공동투자를 하더라도 가능한 소수

로, 투자금액에 맞는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의 참여가 권유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익명조합의 공동투자 주체들은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투자 대상의 수익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투자에 나선다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담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인 ‘전파소년’ 구범서씨는 “한 공동투자 조합의 계약서에는 채권자는 1년에 딱 하루, 12월 31일 영업시간에만 조합의 회계장부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그날이 오기도 전에 법인이 버티지 못하고 파산해 경매로 넘어가도 투자자들은 상황을 파악해 대응하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손실이 나도 외부에 오픈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투자 종료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계약서도 많다. 양준모 법무법인 AL 대표변호사는 “투자계약서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투자 모집 과정에서 수익 보장을 했다든가, 경매업체가 신고 없이 투자금을 모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피해 발생 시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수밖에 없다. 김정현 본부장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성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투자자는 세분화된 반도체 ETF가 맞고, 반도체 공부 어렵다면 전반적인 산업에 투자하는 ETF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신상 반도체 ETF의 또 다른 특징은 ‘차별화’다. 이미 자리 잡은 기존 상품

과 다른 매력을 내세워야만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오른 주식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면 ‘WOORI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가 대안이다.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되, 작은 종목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많이 오른 주식은 과감하게 배제하는 액티브 ETF다. 실제로 이 상품은 AI 후공정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를 아예 들고 있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운용을 펼치고 있다.

최홍석 우리자산운용 ETF실장은 “기존 펀드멘털 대비 가격이 높은 종목들을 줄이는 대신 상승 여력이나 재무체력이 있는 기업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라며 “최근 저평가돼 있지만 HBM 고객사 확장이 유력한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KOSF 글로벌전력반도체’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시스템반도체의 일종인 전력반도체는 전력의 변환·변압·분배·제어를 담당하는 전자 부품이다.

전기차와 데이터센터 등은 막대한 전력을 고온·고전압·고주파라는 거친

환경에서 다뤄야 한다. 이에 따라 내구성과 전력효율이 뛰어난 전력반도체가 필요하다.

대표적 투자 종목은 미국 전력반도체 기업 울프스피드·온세미·코히어런트, 독일 전장용 반도체 기업 인피니온, 스위스에 소재한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사 ST마이크로 등이다.

김연주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 타운홈
<b>\$1,110,000</b>	<b>\$426,000</b>	<b>\$580,000</b>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고급가구 Moving Sale 합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유니티 보험**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 손 못대는 공사중단 '유령 아파트' 지자체 손 댄 방법 고심

30년째 흉물 북한강변 모텔 등 전국 장기방치건축 286곳 달해 사유재산이라 강제철거도 복잡 "지자체 권한 강화해야" 목소리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2000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행사 부도로 중단되면서 20년 넘게 빈 채로 방치돼 있다. [사진 용인시]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북한강변,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선 도로 한쪽에 을씨년스러운 회색빛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자리잡았다. 기둥엔 별갈래 녹슨 철근이 드러나 있었다. '위험'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안내판이 무색하게 정문은 활짝 열린 채였다. 당초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51실의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로 계획됐다. 하지만 시행사 자금난으로 1990년 시작된 공사가 1994년 중단되며 30년째 흉가처럼 방치됐다. 주민 김모(68)씨는 "건물이 방치돼 지역 흉물이 되고 있다. 빨리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공 신고 후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장기 방치 건축물'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다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국의 '장기 방치 건축물'은 286곳이다. 169곳은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 지난 건물이었다. 강원도가 4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34

곳)·충남(33곳)·충북(27곳) 등이 뒤를 이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이 아예 군락을 이룬 곳도 있다. 용인이 대표적이다. 장기 방치 건축물 11곳 가운데 10곳이 처인구 고림동에 몰려있다. 한 부지에서 2000년 착공한 아파트 10개 동이 시공

사 부도로 2002~2003년 공사가 멈췄다. 외관이 갖춰진 상태(공정률 45%)에서 공사가 중단돼 '흉가 체험' 등 일탈 목적의 무단침입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인근에 사는 한 60대 주민은 "동네 가장 위쪽에 여러 동의 아파트 건물이 방치되면서 동네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사유재산인데다 건축주·시행사·시공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아서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림동 아파트는 단지 10개 동을 각각의 사업자가 한 동씩 맡아 공사를 진행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우선 펜스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두게 하는 등 안전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도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해 장기 방치 건물에 정기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인 만큼 지자체가 나서 건축을 종용할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다만, 중앙과 지방정부 개입으로 문

제가 해결된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 부지가 대표적이다.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20년 넘게 방치된 부지는,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후 1호 사업 대상지가 되며 현재 174가구 규모 아파트로 변신했다. 안양역 앞에 24년간 방치됐던 쇼핑몰 '원스퀘어' 건물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1998년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골조공사만 끝낸 채(공정률 67%) 방치됐지만, 경매로 건물을 인수한 건축주가 2025년 5월까지 해당 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75면)으로 사용하도록 안양시와 협의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가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방치 건물의 철거·활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모란·전익진 기자

##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중품아' 무산되나

(올림픽파크포레온)

(중학교 품은 아파트)

서울시 공원 등 공지로 전환 추진 강동구 "입주까지 중단해야" 반발



재건축 공사 완료 이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조감도. [홈페이지 캡처]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부 기부채납 부지에 중학교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空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공지는 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이나 주거편의시설, 상업·업무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땅이다. 학교 관련 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기존 학교 용지에서 활용 폭이 넓어졌다. 애초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4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때문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단지 내 중학교가 자리 잡은 이른바 '중품아' 단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서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중학교를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항의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도시형 캠퍼스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없는 미니 학교로, 폐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대안이다. 하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은 도심형 캠퍼스도 반대하고 있다. 강동구는 서울시와 교육 당국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학교 설립 수요가 있는데도 설립이 안 되면 열악한 학습 환경 피해는 학생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 공지로 전환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공공 공지 전환의 근거였던) 학령인구감소는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원·수분양자를 기초로

조사한 것'이라며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전세·월세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입주를 마치는 시점인 2025년 3월이 돼야 구체적인 아동 수를 가늠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공공 공지 전환을 2025년까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는 6개월 뒤인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난감해하고 있다. 학교 신설 문제는 강동구와 교육청이 논의할 사안이라 개입하기 어렵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이 나오면 서울시도 신속하게 중학교 신설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 폭포와 하나 된 별장, 폴링 워터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펜실베이니아주 깊은 숲속에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절경의 폭포, 베어런이 있다. 인근 피츠버그의 백화점 부호 카우프만 부부는 이곳에 주말주택을 지으려 당대 최고의 건축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그는 세계 근대건축가 탑3에 오른 미국의 자존심이며 건축시망생인 아들, 카우프만 주니어의 상사이기도 했다. 라이트는 평생 1000여 점을 설계한 다작의 건축가였으나 이 별장에 더욱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현장 답사 후 오랫동안 구상만 한 채 도면을 그리지 않았다. 카우프만과 미팅 2시간 전에 급히 그린 스케치는 폭포 위에 집을 띄우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폭포를 바라보는 곳에 짓기를 원했던 건축주는 격노했으나 집요한 설득 끝에 1935년 계획대로 완공하면서 '폴링 워터', 낙수장이라 번역되는 이름을 얻었다. 4년 후 게스트하우스가 추가되었고 후에 주 정부에 헌납,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폭포를 훼손하지 않고 7m 높이에 지으려고 기다란 테라스 4개를 설치했다. 뒤쪽의 석조 건물에 지지한 채 공중에 매달린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다. 석조 건물 내부의 방들은 낮고 통로들은 좁다. 모든 창은 자연을 향해 열려있고 테라스로 나오면 웅장한 폭포의 소리를 들으며 숲과 하나가 된다. 중부 미국 출신의 라이트는 대초원의 수평선에 어울리는 수평적 건축을 추구해 시카고 일대에 '프레리 하우스'라 이름한 수많은 주택을 설계했다. '폴링 워터'는 프레리 하우스의 완성판이며 자연과 일체화된 유기적 건축의 끝판왕이다. 조경과 가구·인테리어까지 토털 디자인을 추구해 170점의 맞춤형 가구와 조명들이 실내에 가득하다. 압축된 실내에서 개방된 자연으로 확장되는 극적인 공간이며, 고요한 숲과 하나된 단순하고 우아한 형태다. 준공 직후부터 캔틸레버 테라스가 처지기 시작해 여러 차례 보강했고, 물소리가 시끄러워 숙박하기 어려웠던 결점은 이 과감한 성취와 바꾼 대가였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미래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용자”

- 주택용자
- 자영업자용자
- NON-QM
- DSCR용자
- 외국인용자
- 상업용자

VA/MD/DC/TX 외 12개주 가능

Sylvia E Son

Sr. Loan Officer ( NMLS: 2315308)

(NMLS: 1301672)  
7619 Little River Tnpk, #320, Annandale, VA 22003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An Equal Housing Opportunity Lender. Copyright 2015 - 2021, Emet Lending Group, Inc. DBA Emet Mortgage headquartered at 2601 Saturn St., Ste. 200 Brea, CA 92821. NMLS ID # 1301672. Toll Free # 866-777-3638. All rights reserved. Restrictions may apply. All loans are subject to credit, underwriting and property approval guidelines. 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NMLS) Consumer Access Web Site: www.nmlsconsumeraccess.org.





THE CENTURION GROUP

THE CENTURION GROUP  
TTR |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 차별화된 Sotheby's 만의 격조 있는 서비스를 지금! 경험 하세요.



**Sylvia Son**  
Preferred Lender (MLO 2315038)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David Park**  
Managing Principal  
+1.646.644.2564  
dpark@ttrsir.com



**Jenny Park**  
Operations Manager  
+1.858.692.4774  
jennypark@ttrsir.com

계속되는 치열한 매물시장!  
Sotheby's 팀은 바이어님들을 위해 오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럭셔리 콘도미니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CLUSIVE LISTING**  
\$10,000,000  
콘도, 12유닛, 넓은 주차장, 12,411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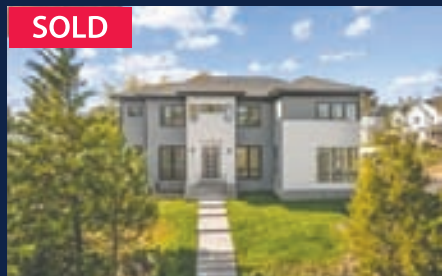
**EXCLUSIVE LISTING**  
\$9,2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8,132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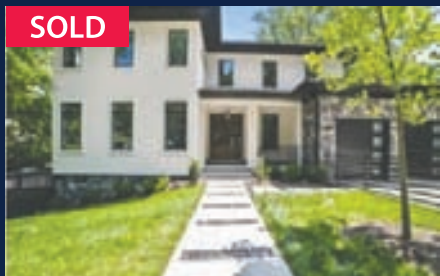
**EXCLUSIVE LISTING**  
\$4,776,000  
콘도, 6유닛, 넓은 주차장, 12,180 SqFt



**EXCLUSIVE LISTING**  
\$3,804,900  
콘도, 12유닛, 7,865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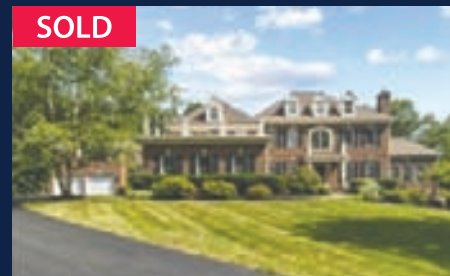
**SOLD**  
LIST: \$2,390,000  
SOLD: \$2,285,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8, 4,821SqFt



**SOLD**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SOLD**  
LIST: \$2,188,888  
SOLD: \$2,20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4,360SqFt



**SOLD**  
LIST: \$1,750,000  
SOLD: \$1,7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6,804SqFt

오픈하우스 일정: 824 18th st NE, Washington D.C., 20002. 매주 일요일 2pm- 4pm.  
웹사이트: <https://www.dmvcenturiongroup.com/>



**SOLD**  
LIST: \$3,199,000  
SOLD: \$3,0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7, 4,075SqFt



**SOLD**  
LIST: \$2,250,000  
SOLD: \$2,125,000  
싱글홈, 방 7, 화장실 8, 4,887SqFt



**SOLD**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SOLD**  
LIST: \$1,850,000  
SOLD: \$1,892,476  
싱글홈, 방 6, 화장실 8, 5,195SqFt



**SOLD**  
LIST: \$1,150,000  
SOLD: \$1,15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7, 4,505SqFt

용자 칼럼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이자율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즈음,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많은 이들은 본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대출이자 투자자가 되는 주택구입용자를 조금이나마 더 좋은조건으로 얻고자 여러 은행들과 용자회사와 비교를 한다.

소비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당연한 행동이자 꼭 행사해야할 권리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아직도 시장에는 전문 라이선스가 없는 용자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모든 자격증이 필요한 일과 업무에는 사실 그 자격증, 라이선스가 왜 있어야만 해당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지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다룰수록 라이선스와 자격증의 중요성은 아무리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2007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 부동산 시장의 폭락, 또 그로인해 닥쳐온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두번 다시 어리석은 일들이 시장에 발생하지 않도록 발효한 라이선스 제도가 바로 2008년 하반기 부터 시행된 SAFE Mortgage Licensing Act of 2008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용자업무를 해야하는 사람은 모두가 해당 라이선스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고, 또 신용조회 및 크레딧 조사까지 마친뒤에 무사히 NMLS 자격번호를 부여받아야만 이 분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만큼 주택용자는 큰 규모이고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나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책무와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자격을 갖춘뒤에도 해마다 라이선스

라이선스의 중요성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갱신과 연장을 위해서 추가 교육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 노력을 해야함은 물론이다.

필자 또한 2008년 라이선스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혹시나 떨어지면 어쩌나하는 긴장감으로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고, 고객들을 위해 가계재정의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용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써 스스로의

책임을 가지고 나자신의 크레딧과 신용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면 누구앞에서도 현재 내가 하고 있는일이 당연하고 떳떳하다.

하지만 아쉬운점은 여전히 시장에는 자격이 없는이들이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주택용자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자격 없는 이들에게 뭘 믿고 맡기는지 소비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꼼꼼히 따져봐야할것이다.

현행 라이선스 제도는 주택용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과거의 폐해들로 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모두가 자격을 갖추고 일을 함으로써 혹여나 추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해서 주택용자자격 인들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

을 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광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라이선스번호를 함께 공지를 하도록 되어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담당 용자인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되어있다.

추후에 담당했던 일들에 대한 불만 신고 또한 해당 라이선스를 상대로 신고 할수 있게 함으로써 자격증을 갖춘 용자들이 말그대로 책임있는 신뢰할수 있는 업무를 하게 함으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자는데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중요하다 중요한 주택용자를 얻는데 있어서 아무에게나 맡길수는 없지 않은가? 소비자 스스로가 더 엄격하게 또 더 까다롭게 따져보고 요구할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해서 더이상 자격없는 이들의 황포에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소비자들 스스로가 이젠 육성을 가릴수 있는 안목을 가질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문의: 703-868-7147

주택 상태의 5가지 위험 신호

주택 구입은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그러므로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바로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바이어가 비용을 들여 홈 인스펙션을 하고 있다. 그라야 부동산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고,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밝힐 수 있다.

일반적인 인스펙션 항목들은 대지, 지붕 및 외장재를 포함한 주택의 외부, 그리고 다락이나 집의 하부를 포함한 건물의 구조, 냉-난방 및 환기 등의 기계적 장치, 배관, 전기, 집 내부의 모든 시설, 차고 등이다. 즉 주택을 검사할 때 인스펙터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항목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포괄적인 주택 검사를 통해 주택의 기존 문제를, 문서화된 사실을 기반으로 가격 조정을 논의하거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간혹 에스크로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세한 검사 보고서는 향후 유지 관리 및 수리를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문제와 지연할 수 있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스펙션 보고서에 따라, 앞으로 몇 년 안에 지붕을 교체해야 할지, 난방방(HVAC) 시스템의 수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지 않은지 등에 따

라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특별히 홈 인스펙션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하자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를 알아보자.

먼저 구조적 문제이다. 벽의 균열, 고르지 못한 바닥, 처진 천장과 같은 문제들은 값비싼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붕을 비롯한 주택의 외부 문제이다. 약화된 지붕 널판, 부적절한 배수 시스템 및 주택 외부벽 등의 손상으로 인해 건물이 물로 인한 손상을 입거나, 해충 침입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추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

배관, 전기 및 HVAC 시스템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오래된 배관, 잘못된 전기 배선, 비효율적인 냉난방, 환기 시스템으로 인해 수리 비용이 많이 들고 거주자에게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전원 공급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전기 패널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 단열 및 환기도 중요하다. 열악한 단열재와 부적절한 환기로 인해 과도한 에너지 비용이 발생하고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고 쾌적한 집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과 습기 문제가 있다면 자세하게 검사해야 한다. 천장의 물 얼룩, 크롤링 공간의 습기 및 손상된 창틀은 물 침입의 징후일 수 있으며, 이는 곰팡이나 구조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미셸 원-BEE부동산 부사장

셀러의 의무 공개서

집을 매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조언을 받고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을 수리하고 단장해서 내놓는 수도 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셀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매매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는 공개서(Disclosure)다. Disclosure는 바이어가 구매 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Material Fact'라고 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사실부터 집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까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을 매매한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셀러가 주는 Disclosure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퍼 공개서(Transfer Disclosure Statement-TDS)인데 반드시 집 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없다. 1984년 애스턴과 스타레스 버거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다. 당시 애스턴이 1에이커 대지의 3000sf 건평인 집을 스타레스로부터 17만 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이사 후 땅이 가라앉아 집의 기초공사가 뒤트리고 공사비만 20만 달러 이상이 나온 것이다.

바이어가 소송한 이유는 집이 매립지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에 산사태가 2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셀러가 숨겼다. 당시 판사

는 셀러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예외적이었던 것은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5%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후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가 생겨났고 에이전트들의 책임 한계에 대한 해석도 넓어져서 집 매매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 그 집에 대한 인스펙션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은 인스펙션 관련해서 전문성을 뭘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항들과 셀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에이전트가 우연히라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숨김없이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TDS 서류는 1~4가구 주택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은행차입 매물이나 상속 재산 매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될 수 없다. 만약 셀러가 이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매도인 부동산 공개서(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집 주변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연재해 위험 공개서(Natural Hazard Disclosure),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일 경우 납 성분 페인트 공개서(Lead Based Paint Disclosure), 증축된 부분의 허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청구를 한 경우 등도 모두 해당하며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케네스 정-드림부동산대표

1번 '차고 개조'에서 이어집니다

또 업무 특성 상 전화 통화가 잦다면 차고 공간이 울림이 큰 것을 고려해 바닥에 카펫을 깔거나 창문에 커튼을 달아 소리를 흡수할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된다. 또 서류나 기타 사무용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벽에 캐비

닛을 설치하는 것도 완벽한 홈오피스 개조를 위한 팁이다.

만약 흡음으로 개조하려 한다면 운동 후 마실 음료수나 물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 운동 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쿠션감이 있는 고무소재 바닥재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ty 1 Maryland featuring agent Jinny Choi and Stacy Yang. Include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status (e.g., 'SOLD', 'UNDER CONTRACT') and a 'RENT' section with monthly rates for various areas like Elkridge, Hanover, Germantown, etc.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6월 **HOT** 리스팅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번소 주변을,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셀러-집팔때 신경쓰기 싫고, 부동산이 주인 입장에서 잘 알아서 해결해 주기 원할때,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바이어-매물 부족, 이자율 상승으로 힘든 바이어 마켓에 어느때보다 전략이 절실한 때 입니다.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택 매매 / SALE



####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겔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 주택 매매 / SALE

####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 영화 보면서 오케스트라 감상...강렬한 라이브, 관객을 홀리다

“제가 연출했던 필름 콘서트는 다양합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크리스마스 악몽’, ‘미녀와 야수’, ‘알라딘’, ‘토이스토리’, ‘블랙 팬서’, ‘인어공주’, ‘라이온 킹’, ‘해리포터’, ‘아마데우스’...”

필름 콘서트의 기술 프로듀서인 스콧 패리시는 긴 목록을 보내왔다. 중앙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까지 연출했던 공연의 영화가 20여 편이라고 했다. 미국·캐나다·홍콩과 유럽 등에서 열렸던 공연들이다. 필름 콘서트는 무대 위 스크린에 영화를 상영하고, 오케스트라가 영화의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는 형식이다. 패리시는 오케스트라·무대·영상·오디오·조명 등 기술적인 부분의 총괄을 맡는 연출자다.

패리시가 보낸 긴 목록이 놀라운 이유는 그가 2017년에야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필름 콘서트라는 형식이 최근 전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인기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동향에 따르면 클래식 음악 장르의 티켓 판매액 상위 10개 공연 중 3개가 한스 짐머, 히사이시 조 등의 영화 콘서트다. 이달 1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디즈니 ‘판타지아’의 연출자로 한국에 오는 패리시에게 필름 콘서트의 매력에 대해 물었다.

어떻게 필름 콘서트의 연출자로 일하

게 됐나.

“이전에는 색소폰 연주자였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함께 하자고 권유를 했고 오케이 했다. 첫 콘서트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공연이었다. 관객이 코스튬을 입고 와서 즐거운 환상적인 경험이었고, 필름 콘서트의 매력에 푹 빠졌다.”

왜 전 세계에서 이 형식의 콘서트가 인기일까.

“라이브 음악의 강렬함 때문이다.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연주를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액션과 대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연에서만 음악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렇게 관객을 바꾸면서 음악과 영화 모두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디즈니의 ‘판타지아’는 1940년 나온 음악 애니메이션이다. 베토벤 교향곡 5번, 6번 ‘전원’,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스트라빈스키 ‘불새’ 등 클래식 음악의 명곡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어진다. 어떤 음악에는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이 함께 하고, 어떤 음악에는 추상적인 그림들이 이어진다. ‘음악의 시각화’라는 주제로 2년 넘는 제



지난해 세르비아의 ‘판타지아’ 콘서트.

[사진 스콧 패리시, 마스트미디어]

작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특히 당대의 거장 지휘자였던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서라운드 녹음이 화제였다.

“이번에 연출하는 ‘판타지아’에는 대사가 없고 클래식 음악이 이어진다.

“대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소통이 음악으로 이뤄지는 독특한 필름 콘서트다. 나는 ‘판타지아’를 미국·세르비아·캐나다에서 총 5번 연출했다. 관객 중 상당수는 라이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라이브 음악의 강렬함에 곧 매혹되는 경험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필름 콘서트 청중이 보통의 오케스트

라 공연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경험 중 하나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선보인 ‘판타지아’ 필름 콘서트다. 다뉴브 강변의 야외 공연장에서 아름다운 여름 날 저녁에 열렸다. 많은 청중이 먹을 거리를 피크닉 가방에 담아 왔고 아이들은 공연을 기다리며 뛰어놀았다. 오케스트라가 조울을 시작하자 매우 고요해졌고 지휘자가 등장하면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연주가 다 끝나고는 관중 전체가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판타지아’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곡과 장면은 무엇이었나.

“뒤카 교향시 ‘마법사의 제자’에 맞춘 미키 마우스의 애니메이션이었다. 어린이들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실제 음악가들에 의해 연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아이들은 ‘판타지아’ 필름 콘서트를 보면 충격을 받으며 기뻐한다. 이들이 결국 오케스트라 라이브 공연의 청중이 되기를 희망한다.”

디즈니의 ‘판타지아’ 필름 콘서트의 한국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즈니의 제작 영상과 함께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 진솔이 함께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1940년대의 오리지널 화면과 함께 2000년의 후속작 화면이 편집돼 함께 쓰인다.

김호정 기자



스콧 패리시

## ‘킹’을 원하는 팀, ‘킹의 아들’을 잡아라

(르브론 제임스)

(브로니 제임스)

‘킹(King)’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 프로농구(NBA)의 수퍼스타 르브론 제임스(40·LA 레이커스)가 아들 브로니(20·남가주대)와 함께 코트를 누빌 수 있을까.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11일(한국시간) “브로니가 NBA 무대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 구단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버지 르브론은 지난달 30일 “브로니가 2024~25시즌 NBA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력만 보면 브로니는 NBA 무대를 밟기 어렵다. 지난 시즌 전미대학스포츠협회(NCAA) 리그에서 경기 당 평균 득점 4.8점, 야투 성공률 36.6%에 3점 슈트 성공률 26.5%에 그쳤다. 체격도 키 1m89cm에 몸무게 95kg에 불과하다. 2m대 거구들이 득세하는 NBA에서 뛰기엔 작은 편이다. 2m6cm, 113kg의 당당한 체격을 갖춘 아버지에게 크게

‘킹’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의 장남’ 브로니 제임스	
1984년 12월 30일(40세)	생년월일	2004년 10월 6일(20세)	
2m6cm, 113kg	체격	1m89cm, 95kg	
LA 레이커스	소속	남가주대	
포워드	포지션	가드	
25.7점	2023~24 시즌 기록	NCAA 4.8점	
8.3어시스트 7.3리바운드		2.1어시스트 2.8리바운드	

르브론 장남 브로니, 드래프트 참여 “아들과 한팀서 뛰고 싶다” 공개 선언

못 미친다. 더구나 브로니는 지난해 7월 훈련 도중 심장 이상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코트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평가다. 그런데도 르브론의 장남 브로니의 주가는 폭등하고 있다. NBA 당대 최고 스타를 아버지로 둔 덕분이다. 1984년생인 르브론은 “은퇴 전 아들과 함께 뛰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르브론은 불혹의 나이에도 여전히 리

그 정상급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즌 71경기에 출전해 평균 25.7점(13위), 8.3어시스트(5위), 7.3리바운드(30위)를 기록했다. 인기도 여전하다. 팬들은 지난 21시즌 동안 꾸준한 활약을 펼친 르브론을 두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 견줄 만한 선수”라고 평가한

다. 결국 브로니를 지명하는 팀은 르브론까지 함께 영입하는 행운을 잡을 수도 있다.

르브론은 소속팀 레이커스와 계약이 사실상 끝난 상태다. 르브론 본인이 레이커스에 남는지 팀을 옮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아빠 찬스” 덕분에 아들 브로니는 10여개 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브로니를 원한다. 결국 르브론을 영입하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브로니가 어느 팀에 입단할지를 놓고 베팅을 하는 도박사이트도 생겼다. BetMGM은 브로니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레이커스는 르브론이 잔류하면 아들을 뽑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BA 신인 드래프트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미국 뉴욕의 바클레이스 센터와 ESPN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피주영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Bobbie: You're looking great Roger.  
바비: 로저 자네 아주 좋아보이는데.  
Roger: Thanks. It hasn't been easy.  
로저: 고마워. 쉽지는 않았어.  
Bobbie: What's been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losing weight?  
바비: 체중 줄이는데 제일 힘든 건 뭐였어?  
Roger: The food. Giving up what I love to eat hasn't been easy.  
로저: 음식이지. 먹고 싶은 걸 안먹는게 쉬운 일이

아냐.  
Bobbie: I know what you mean.  
바비: 무슨 애긴지 알아.  
Roger: Once in a while I get the urge to have some ice cream.  
로저: 가끔씩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지거든.  
Bobbie: What do you do?  
바비: 그럼 어떻게 해?  
Roger: I drink water instead.  
로저: 대신 물을 마시지.

get or have the urge to: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Roger is talking to a friend Bobbie at a health club...)  
(로저가 헬스클럽에서 친구 바비와 얘기한다...)

Bobbie: And that helps?  
바비: 그러면 괜찮아?  
Roger: It works for me.  
로저: 내 경우에는 괜찮아져.

"Once in a while I like to take a walk on the beach."  
(가끔씩 저는 바닷가 걸기를 즐깁니다.)  
▶ (it) works for me: 제 취향에 맞아요 제 경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 give up (something): ~를 그만 두다 포기하다  
"I gave up smoking a long time ago."  
(전 예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 once in a while: 가끔씩

Jim: "You put chocolate on your popcorn?"  
(자넨 팝콘에다 초콜릿을 얹는단 말야?)  
Roger: "It works for me. I like it."  
(난 그게 좋아. 맛이 좋아.)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열쇠

(2)땅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선 (3)차 따위가 왼쪽으로 돌 (5)사찰에 들어서는 산문 가운데 첫 번째 문. 두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독특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7)생강이나 무, 과일 따위의 즙을 낼 때 쓰는 기구 (8)팔죽 속에 넣어 먹는 동글동글한 덩이 (9)은조왕이 한 반도 남서부에 세운 나라 (10)빨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12)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15)안사돈의 높임말. ~, 제 딸을 친딸처럼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17)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 벌써 점심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도 못했다 (19)자기의 손이나 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 (20)야구에서, 일루수 이루수 삼루수 유격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21)원한을 품고 앙갚음하려고 버리는 마음 (22)올 사람을 기다리기 위하여 길에 나가 있는 일 (24)부정한 돈을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해 둔 자금 (25)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 그는 ~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 금방 배운다

세로열쇠

(1)세상에 태어난 날 (2)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갓의 무늬 (3)팔기 위하여 물건을 빌려놓은 널조각 (4)어떤 행사에 앞서 그 전날 밤에 베푸는 축제 (6)물이나 술을 대우거나 답아서 따르게 만든 그릇 (7)웬만한 일에는 겁내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대담한 성질 (8)젊은 사람의 검은 머리에 드문드문 섞여서 난 흰 머리칼 (9)하얀 눈 (10)모서리를 모가 나게 깎은 나무 (11)경기에서 이기고 집이 없이 비김 (13)비교적 많은 양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물 (14)물을 길는 데 쓰는 짚그릇 (15)뱀을 다그리고 나서 잊지도 아니한 발을 덧붙여 그려 넣음. 쓸데없는 군것질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16)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17)악마의 손. 사람을 현혹하거나 파멸시키는 음흉한 손길이나 수단 (18)어린이의 걸음걸이 (19)밀가루 반죽을 장국에 떼어 넣고 익힌 음식 (21)부드러운 가루가 물에 가라앉아 생긴 층 (22)빌려 쓴 돈에 대하여 다달이 갚는 돈. 이자. ~는 매달 그림날에 갚기로 하세 (23)한 달 가운데 11일에서 20일까지의 동안

스도쿠

6			3			1	2	9
7	1		6	4	2			5
		2	3	8			4	
1			7				2	5
			5		1	9		
					8	7		4
8			9	5		7		2
9	7	4					8	6
2	5		7			3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6	8	9	7	1	5	2
9	8	5	3	2	1	4	6
2	1	7	4	5	6	9	8
1	4	6	7	8	5	2	9
3	7	9	6	1	2	5	8
8	5	2	9	3	4	7	6
7	9	4	1	6	8	3	2
5	3	8	2	4	9	6	1
6	2	1	5	7	3	8	4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카드 번호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위인**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운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온라인세일 및 웹사이트관리자.  
MD소재 식당장비 회사의 웹사이트 관리 및 온라인세일 관리 도우실분. 재택근무, 파트타임 가능. 자기소개, 근무가능 시간 및 희망보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571-332-2101(문자)  
edk.tre@gmail.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서: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Assistant Pastor: Assist the senior pastor in the ministry for the adult congregation of the church; Preach, lead, administrate in worship services including praise and dawn prayer worship services.; Preside and perform baptism, communion, wedding and funeral services; Teach and train small group leaders for biblical servitude; Provide spiritual counseling to church members; Make visitations within Fairfax County VA and its BLS area. 40hrs/week, 6 days/week. M.Div. in Theology and Ordination req'd. Send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Employer & Job Plac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KCPC at 15451 Lee Highway, Centreville, VA 20121.

건강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hjan@gmail.com 703-256-5050

첸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vac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서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서 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첸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첸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홀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 〈식당/제과/델리/식품〉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슈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리컷시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싸실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 - 48시간 (주 5일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 - 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서술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엘리컷시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싸실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현동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르뱅 베이커리 캐슈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워싱턴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 각종 집수리 일체
-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mailto: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http://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mailto: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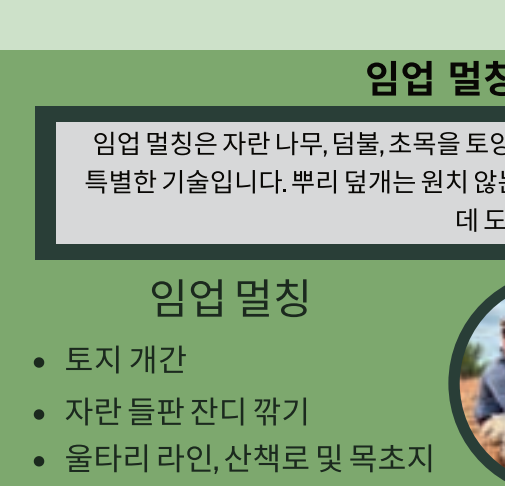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매매  구입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트로 먼저 연락 요망  
(949)422-8332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 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꿈**을 위한 노력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주방장**  
숙식제공, 조리아주지역  
(646)229-2708

미인생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림

###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전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율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 Leisure World Seal Beach, CA

##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샵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췌장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취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JAWS TOPOKKI Franchise Partner 모집

KOREAN STREET FOOD의 대명사 '쫄스 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바르다 김선생' 복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국 JAWS BUSINESS를 함께 하실 파트너 분을 초대합니다.

**A. AR (Area Representative) 모집**  
해당 State에서 JAWS Business 가맹 사업을 총괄하실 Business Partner를 모집 합니다.  
(IL, NY, TX, MD, VA)  
상담 문의 E-Mail : info.tpk@jawsfood.com C.P : 714-715-5595

**B. 미국 매장 현황**

1. The source Mall (CA)
2. LA K-Town (CA)
3. Balboa H-mart San Diego (CA)
4. Johns Creek (GA)
5. Suwanee (GA)
6. Mall Corners (GA)
7. Tampa Lotte Mart (FL)
8. Haven City Rancho Cucamonga (CA) 7월 오픈
9. Palisades Park (NJ) 7월 오픈
10. Irvine H-mart (CA) 7월 오픈
11. Haven City West Covina (CA) 8월 오픈
12. Urbana H-mart (IL) 9월 오픈 (가맹 모집 중)
13. Orlando H-mart (FL) 10월 오픈
14. Seoul Street Anaheim (CA) 11월 오픈
15. Bonita Mall San Diego (CA) 11월 오픈
16. Harry Hines H-mart (TX) 11월 오픈 (가맹 모집 중)

**JAWS Topokki**

##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종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2,000개 / Box)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213.985.4200 DOKDOSUPPLY.COM**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계단없는 1층, 단지내 시설 좋음, 걸어서 쇼핑센터, 교통 좋음 **\$329,900**



**Contract**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팬스. **\$439,900**



**독점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남향, 밝은 집, End unit, 1,475SF, H-Mart 가까운 동네. **\$370,000**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ls **\$58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